

北, 연천에 포사격 도발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제328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1914.55	(−24.83)
코스닥	656.71	(−13.84)
금리(국고채 3년)	1.73	(+0.01)
환율(원·달러)	1185.10	(+2.60)

카피캣 삼성맨들의 굴욕





KT황창규, 1등 SKT 흥행작에 눈독 모바일지갑·내비게이션 등 따라쟁이

통신사업자 KT(회장 황창규)는 요즘 모바일 지갑, 내비게이션 등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에 한창이다. 이미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의 모바일 지갑 '시럽',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과 같은 서비스를 유사하게 만들어 1위 사업자를 따라간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KT는 모바일 지갑 클립을 '국내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시했다. 하지만 서비스 내용을 따져보면 '국내 최초' 서비스가 아닌 '경쟁사 서비스를 베낀' 서비스란 표현이 정확해 보인다. SK플래닛이 지난해 출시한 시럽(Syrup)월렛은 현재 가입자 1400만 명을 기반으로 가맹점 5만 곳을 확보했다. 시럽에 모인 1400만 명을 패밀리앱인 시럽페이(간편결제)·시럽애드(광고)·시럽오더(선주문 서비스) 등으로 연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KT '클립'의 경우 SK플래닛의 '시럽' 서비스에서 추가된 서비스 정도가 있는 것이지 누가봐도 유사한 서비스이다. KT에 따르면 클립은 금융 계열사 BC카드와 합작해 카드 할인 정보와 멤버십, 쿠폰을 엮어 이용자가 챙길 수 있는 최대 할인 혜택을 알려주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의 모바일 디자인 외 '시럽'과 '클립'의 주요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다. 두 서비스는 가맹점을 기반으로 멤버십 적립·할인, 쿠폰 할인 정보 등 을 제공한다. KT 클립의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 신용카드 할인·행사 정보를 알 수 있다. 반면 SK플래닛은 시럽페이를 통해 직접 모바일 소액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KT는 10월 부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렇게 두 서비스는 흡사하지만 클립을 출시한 KT는 '국내 최초' 서비스라며 시장에서 독점적인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시럽'을 기만하는 모습이다.

두 서비스를 사용해본 직장인 가입자(30) A씨는 "시럽 서비스를 따란 한 것이 명백한데 국내최초라는 것은 코미디 수준이다"며 "이미 시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 클립이 새롭다거나 차별화된 요소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장에서 삼성전자를 '카피캣'이라고 비난한 것이 생각난다"며 "KT는 카피캣(copycat: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하는 미투(me too) 제품)을 하고도 뻔뻔하게 국내 최초라는 표현을 쓰는 등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와 BC카드는 연내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발주자 시럽은 이미 서비스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보하면서 한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수 1400만명을 돌파한 시럽은 웹기반 간편결제 '시럽 페이' 등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럽페이는 출시 4개월만에 거래액 6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모바일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라 해도 차별화된 서비스여야 가능 한 일이다.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라면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카피캣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월에 출시한 올레내비는 2002년 출시한 T맵보다 후발주자로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다. 올레내비가 출시된 지 5년이 되가지만 아직도 1800만 가입자 T맵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점유율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김기사가 시장에서 무섭게 치고 오르면서 시장은 T맵과 김기사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KT는 올레 내비 성능 개선과 스마트 카 사업 강화를 발표했다. 스마트 드라이빙 솔루션을 전격적으로 출시하고, 내비게이션 앱 '올레내비' 성능 개선에 나서며 스마트카 사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T맵 서비스 개선 방향과 비슷하다. SK플래닛은 2010년부터 스마트폰 중심의 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SM5 플래티넘'에 최초 상용화했으며 현재 르노삼성 차량의 전 라인업에 적용한 상태다. 길안내 서비스인 'T맵'의 차량용 버전 '3차원(3D) T맵'을 비롯해 사진과 음악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콘텐츠를 차 안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심플싱크', 차량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고연비·친환경 운전을 지원하는 '에코드라이빙'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전자 신종균 '이재용폰' 흥행실패 보수 97억 줄어… "뻥튀기 홍보 자충수"

'미스터 갤럭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확줄어든 보수를 받았다.

20일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5억7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세간의 부러움을 샀던 신 사장은 올 상반기 16억40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갤럭시S6'의 부진으로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신 사장은 상반기 월 급여 8억6400만원, 상여 7억6800만원, 총 16억4000만원을 받았다. 기타 근로소득은 800만원이다. 여기에서 1분기 급여 12억원을 제외하면 2분기 신 사장이 수령한 급여는 4억4000만원 수준이다. 1분기 인센티브가 집중된 반면 2분기에는 월급여만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113억4500만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1년 만에 86%(97억500만원)나 줄었다. 여기에 신 사장은 책임지지도 못할 판매전망 수치를 내놓는 등 '양치기 사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신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S5 출시 당시 업그레이드 제품 출시를 부인하며 "갤럭시S5 외에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란 기사가 있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갤럭시S5 출시 3개월 만에 스펙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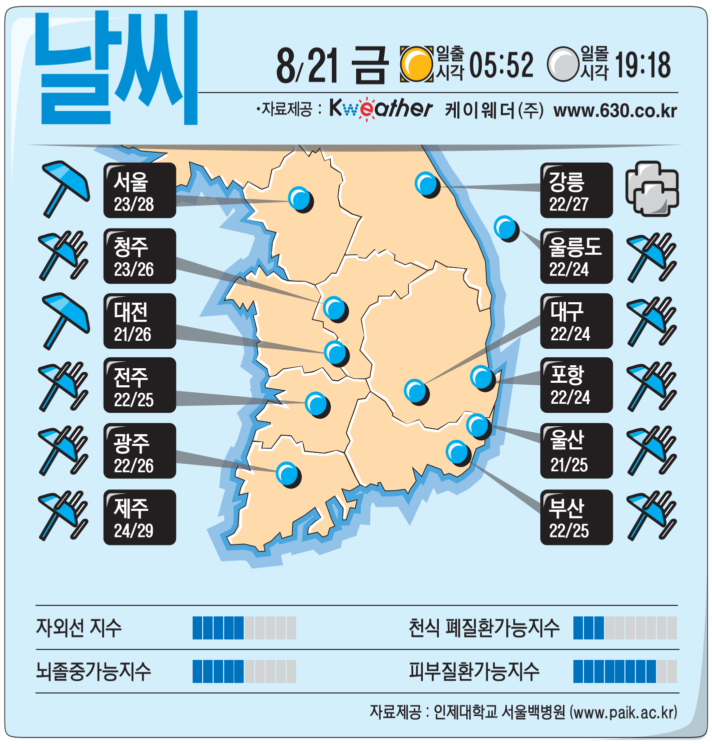
이어 올해는 갤럭시S6 시리즈 초기 시장 반응에 대해 역대 최고인 7000만대 기록을 돌파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했다. 하지만 업계는 갤럭시S6 시리즈 흥행 실패라고 결론짓고 있다. 사실상 아이폰6와 아이폰6+를 모방한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 사장이 처음부터 애플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5000대만 팔아도 잘한 것이라고 홍보 했더라면 국내외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부터 잘못된 홍보 전략이 삼성전자의 신뢰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신 사장은 지난 13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공개하고 "두 제품 모두 준비를 많이 했고 잘 만들었다"며 "성공할 자신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갤럭시노트5 등 신제품 공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전략폰으로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를 내놓았지만 애플도 9월 신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프리미엄 시장 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치

▲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3일 중국인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외교지형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만장일치로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유통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박스 7개 분량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삼성가(家) 비운의 황태자 **고(故) 이맹희** CJ명예회장이 20일 영면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엄수한 운구 행렬은 오전 8시께 서울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으로 이동해 영결식을 가졌다. 영결식을 마친 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살았던 장충동 자택에 10여 분간 머문 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가족 사유지인 연하산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 수도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21일 문을 연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는 축구장 2배에 달하는 약 42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식품관이 들어선다. 식품관 건립에는 전체 투자액 9200억원의 9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이 투입됐다.

▲ **CJ그룹**이 고 이맹희 회장의 장례를 그룹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하고 일반 조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문상객을 차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빈소 조문을 비롯한 영결식 등에는 CJ 직원들과 일반인은 배제된 체 소수의 친인척과 정치인·재계인사·연예인 등만 참석이 가능했다.

경제·산업

▲ 

KT가 최근 모바일 지갑, 내비게이션 등의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에 한창이다. 이미 초기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만들어 1위 사업자에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 '미스터 갤럭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보수가 줄어드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가 내년 출시할 플래그십 세단 탈리스만이 SM5 또는 SM7의 판매량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삼성**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와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내 최대 사업장이자 국가 기반시설이 밀집한 울산으로 자리를 옮겨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 2분기 실적악화로 주가 하락에 몸살을 앓아온 **네이버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다시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네이버의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강세로 돌아섰다. 올 2분기 어닝쇼크에 신용등급까지 강등된 상태에서 유가하락으로 상승반전할 지 주목받고 있다.

▲ 올 상반기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조선과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과 부실 여신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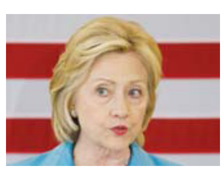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행복주택 등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 **보복운전 가해자**는 책임의 막중함을 물어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중국 톈진 폭발사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문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 불자들이 중국 톈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와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권가도가 흔들리고 있다.

▲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이를 처음 적용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화해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 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간 옥살이를 해온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 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 60대 **한국인 노부부**가 필리핀에 있는 가정집에서 총살된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에서 지난 12일 밤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통화가치 절하압박을 받아온 **카자흐스탄**이 20일(현지시간) 변동환율제 도입을 전격 단행했다.

북한군 포탄 1발 공격… 軍 포탄 20발로 대응

포탄 야산 타격 피해 없어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청와대 긴급 NSC 소집
본격적인 도발 개시 관측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포탄 수십발을 대응 사격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우리군이 운용중인 155mm 견인포의 훈련사격 모습. /연합뉴스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포탄 20발로 대응 사격에 나서고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하달했다. 청와대는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했다. 연천군 중면 지역은 서부전선으로 육군 28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10월 10일에도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이 지역에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포격을 탐지장비로 포착하고 도발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향해 155㎜ 포탄 20발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우리 군 부대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아닌 연천군 일대 야산에 떨어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군이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 소초(GP)의 총안구를 개방하고 포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군의 확성기를 사격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우리 군은 오후 5시 40분부터 전군에 대해 최고 수준 경계태세에 돌입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포격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북한의 지뢰도발 당시 나흘이나 지나 NSC 회의를 열어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포격에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통일·국방 장관·국가정보원장 등이 NSC 상임위원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 의도와 추가 위협 가능성, 실제 무력시위·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도발 의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도발에 앞서 남측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지뢰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남측의 대응이 확성기 방송에 그치면서 북한군이 안심하고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또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머지않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파주 주민 800명 대피… 관광객도 철수

개성공단은 평온 유지

북한군이 20일 포격을 가한 서부전선 파주지역은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고 관광객 등이 철수하는 등 공포에 빠졌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단면 주민 800여명은 해마루촌과 통일촌 등 인근 3개 대피소에 나눠 대피했고, 시청에서는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하고 접경지역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민통선 내 농경작업을 하고 있던 주민들과 관광사업소 직원, 관광객 등을 모두 철수시켰다. 시는 또 임진각 주변에 대피방송을 하고 파주소방서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천·경기·강원경찰청에 작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작전상황반은 각 지방경찰청의 작전계장·비상계획보좌관 등을 반장으로 군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위기상황반으로 격상돼 운영된다.

또 경기 연천·포천·동두천·강화 등 접적지역에는 112타격대 등 작전부대에 출동태세를 확립토록 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포격에도 불구하고 입출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등 평온을 유지했다. 개성공단 마지막 입경시간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으로 지난 17일부터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된 바 있다. /송병형기자

野 '현역물갈이' 선도
與 '국민공천' 진통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만장일치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선도하게 됐다.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세를 폈던 새누리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 공천 혁신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하위 20%의 교체대상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역구 의원은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 활동을 35%씩 반영하고, 의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다면평가와 선거 기여도, 지역구 활동을 더해 평가한다. 비례대표 현역의원은 의정 활동과 다면평가로만 진행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적절한 답변이 나와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며 "평가위 재심 관련 규정만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공천제를 꺼내 든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할 정도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0%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닌 15% 가량은 전략공천으로 간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라며 "저는 그 누구와도 이런 대화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자꾸 흔들려는 세력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모양"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 이것은 수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한국 외교, 탈출구가 안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승절 행사 중 열병식에 참석할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열병식이 군사대국 선언이자 한국의 맹방인 미국과의 대결 선언이기 때문이다. '안보는 미국, 중국은 경제'(안미경중)라는 공식에 매달렸던 한국 외교가 벽에 막힌 채 헤매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야 할 정도로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2354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다. 지난 5월 대미, 대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에도 대중 수출은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인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경제를 넘어 확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경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안보정책을 흔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해석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할 경우 무역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이러니 중국이 보낸 전승절 행사 초청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미중 양 강대국 사이에서 주춤하는 사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이 퍼져나갔다. 미측이 불만이 있다고 해도 군사동맹이나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의 틀을 흔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식의 불만 표출은 가능하다. 실제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박근혜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한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워싱턴 정가에 '코리아 퍼티그'(한국 피로감)가 만연해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일간 과거사 갈등을 두고 한국이 문제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미측에서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중 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과거사에 관심 없다'는 소리도 공공연히 들린다.

/송병형 기자

26년만에 자유 찾았지만 '살인 누명' 여전

美서 화재로 딸 잃은 이한탁씨 부실한 재판으로 종신형 선고

법정싸움 끝에 '석방판결' 승소 방화 살해, 별도 소송제기 해야



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25년이나 한 이한탁(80)씨가 마침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연방 제3 순회 항소법원은 19일 이한탁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 석방된 이한탁씨가 공식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되찾게 됐다. /뉴시스

미국에서 26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 온 이한탁(80)씨가 19일(현지시간) 완전한 자유를 찾았지만 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누명은 아직 벗지 못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필라델피아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이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한구구명위원회 크리스 장 대변인은 "이씨는 오늘부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철도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다가 1978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에 이민을 왔다. 하지만 큰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찾은 교회 기도원에서 비극을 맞았다.

1989년 교회 기도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딸을 잃은 이씨는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했다. 재판 초기 변호사의 무성의와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 배심원의 이해할 수 없는 평결로 이씨는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엄청난 분량의 과학적 자료가 증거로 제시됐지만 별소용이었다. 이씨는 이후 교포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26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치열한 법정 싸움을 계속해 왔다.

이씨의 억울한 사연은 수차례 국내외 언론에 소개됐고, 한국 방송에서도 다루어졌다.

지리한 법정 싸움을 계속해 온 이씨는 마침내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그해 12월 검찰이 마감 기일에 항소를 제기해 또 다시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필라델피아 연방 제3순회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소됐으며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씨는 완전히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이 항소를 늦게 접수하는 등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항소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은 이씨의 승리로 끝났지만 억울한 누명까지 벗은 것은 아니다.

크리스 장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석방 판결에 대한 적법성만을 다룬 것으로 이씨가 방화 살해라는 혐의에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무죄 판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호사와 상의한 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톈진 폭발로 韓 수출차 7000대 전소

현대·기아차 등 1600억 손실 납품지연 등 2차 피해도 심각



중국 톈진항 대규모 폭발사고 현장에서 13일(현지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야적장에 주차돼 있던 신차들이 불에 타 까맣게 잔해만 남은 채 늘어서 있다. 전날 폭발사고로 르노, 폴크스바겐 등 차량 수천대가 불에 타는 등 훼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에서 지난 12일밤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 톈진무역관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 중 현대·기아차 4000대, 현대글로비스 3000대 등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돼 16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CGV는 사고현장 부근 영화관이 파손됐고, A기업은 천장 구조물 파손, B와 C기업은 건물 내·외관 및 내부구조파손, D 등 3개 기업은 유리장 파손, 철골변형 등의 직접피해를 입었다.

납품 지연 등 2차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사고 이후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반경 2㎞ 이내 진입이 9일째 통제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품 반출입이 막혔기 때문이다.

실제 E기업은 물류창고 진입이 통제돼 물류지연 피해가 늘고, F기업은 대기중인 완성품이 반출이 안돼 납품지연이 우려된다. 사고지점에서 900m 지점에 물품창고를 갖고 있는 G기업은 현장 접근이 통제돼 완성품의 파손여부조차 확인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발사고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거래선 단절을 우려해 현황공개를 꺼려 실제 조사된 상황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고지 인근 부두를 제외하고 통관 업무를 개시했고, 현재 70%까지 정상화 회복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지역 화학 잔해물 처리에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톈진시 공안부는 사고 현장에 위험화학물질 3000t 중, 질산암모늄 800t, 질산염 500t, 시안화나트륨 700t이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 항만 등 우회로 확보가 급선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필리핀 범죄 공포… 한국인 노부부 피살

올해만 6명째 피해

필리핀에서 또 다시 한국인이 살해됐다. 올해 들어 벌써 6명이 숨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카비테주에서 거주하던 64살 나모씨와 부인 60살 김모씨가 총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나씨 부부는 목과 가슴 등에 총상을 입은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안방에 있는 소형 금고 문은 열려 있었지만 다른 방들은 뒤진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 부부는 7년전 한국에서 은퇴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접수 즉시 담당 영사를 사건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담당 필리핀 경찰을 접촉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당국은 피해자 유가족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3월 필리핀 수비크 시 인근 야산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한국인 남성이 발견됐다. 2월에는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몸값을 요구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보름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에도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10명에 달했다.

필리핀에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노린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 교민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와 인근 도시에 5만여 명을 비롯해 필리핀 전역에 9만~10만명이 있다. 또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만 명에 달해 돈을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中 금융당국 노력에도… 또 폭락

투자심리 위축에 전날보다 3.42% 하락



한 중국인 투자자가 베이징 증권회사에서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증시가 20일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42%(129.82포인트) 떨어진 3664.29로 장을 마쳤고, 선전성분지수도 2.90%(276.08포인트) 내려간 1만2584.58로 마감했다. 지난 사흘동안 중국 증시는 폭락과 반등, 다시 폭락을 반복해 중국발 증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 사흘동안 45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당국의 시장철수설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쉽사리 안정을 못찾고 있다.

인민은행은 18일 1200억 위안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19일 다시 1100위안의 중기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날도 역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1200억위안에 달하는 단기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처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중국 금융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빠진 투자심리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주가 하락세를 잠시 멈추게 할 재료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 정부가 증시 개입을 통해 지지선인 상하이지수 3500선을 지켜낼지에 쏠리고 있다.

창장증권의 넬슨 얀 최고투자책임자는 "정부가 3500선을 지켜낼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세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불법자금’ 한명숙, 의원직 상실·교도소행

대법 “한만호 진술 인정한 원심 정당해”
현직 의원·태도 고려 신병정리 시간 부여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금품 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 의원이 한만호 전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전 대표가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인복·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출마권도 잃게 됐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과 법정 태도가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에게 신병정리 시간을 준 뒤 교도소 수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살게 됐다. /연합뉴스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노영희(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병정리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이틀 정도로 그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공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09년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관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추가되며 약 7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한다” 20일 강원 춘천시 도청앞 광장에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대표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자녀 취업현황 공개 입법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20일 서울변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이용한 취업 청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이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김영란법’에 신설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입법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연미란 기자

‘철도비리’ 송광호, 전관 변호사 방패로

전 대법관출신 선임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지 4일만에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달 11일 박일환(64)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 1부에 제출했다. 2심을 대리했던 4명에 박 전 대법관 한 명을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3년 전인 2012년까지 대법원에서 심리하다 이듬해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됐다. 대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박보영,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 등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송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비리 등으로 14명이 의원직을 잃은 만큼 15번째가 되지 않기 위해 ‘끗발 있는’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은 셈이다.

박 전 대법관 추가 선임에 대해 바른은 “양측(송 의원과 검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등을 거쳐 지재권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다. 바른 스스로도 블로그 등에서 박 전 대법관을 지재권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사건’ 등 굵직한 판례도 다수 남겼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받은 사실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같은 ‘철도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70)의원은 이달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미란 기자

‘美대사 습격’ 김기종 “화해 원한다”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화해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0일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원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얘기를 통해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했다”며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외교관인 리퍼트 대사는 아직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질신문을 재차 요청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당시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로써 의미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기아차, 고공농성 노동자 '일방해고'

사내하청분회 성명서 "절차를 무시한 징계"

기아자동차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71일째 농성중인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에게 20일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를 사실조사위원회를 가동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는 절차를 무시한 징계"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사실조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시단체협약기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관례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규협씨의 경우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상집 간부임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9일에 진행된 '2015년 사내하청분회 임금교섭'이 파행을 겪었음에도 사측은 아무도 모르게 징계위를 개최해 해고결정을 한 것은 불법적인 결정이고 효력이 없다"고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기아차는 지난 2014년 9월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직·간접 생산공정의 구분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지켜라"라며 "법을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징계 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현명 기자

부당지급한 기초연금 36억원

1년 동안 4만2971건 달해 사망·수감자에게도 지급

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4만2971건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36억원에 이른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 대부분(93.2%)은 최고액을 받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소방관도 단속·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때 문제가 됐다.

소방관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3년 2430건, 2014년 3875건으로 증가 추세다. /연미란 기자



주렁주렁 열린 '수세미' 20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남정보화마을의 수세미 터널에서 가조어린이집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형으로 복역 회피한 女 결국 수감

잠적 6년 3개월만에 잡혀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안면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수사기관을 따돌렸지만 끝내 붙잡혀 결국 수감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모(57·여)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윤씨는 그해 5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다.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윤씨는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선고 1주일이 지나고도 윤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지만,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윤씨는 도피하던 중 눈 주변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던 것. 하마터면 검찰도 윤씨를 놓칠 뻔했다. 애초 안성의 식당을 덮칠 때 검찰이 윤씨를 검문했던 것이다.

검찰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은 예전 사진인데다 윤씨가 눈 성형까지 한 바람에 바뀐 얼굴을 알아차리기 힘들었던 것.

결국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다. /연미란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박창진 손해배상 각하 요구

"뉴욕보다 한국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 호소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실질적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대부분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돼 뉴욕법원보다는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또 "박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전에 이미 산재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HOTEL WIN Sky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할 수 있습니다

1,600만원 있으면 잡아라!!

전국 단일구역 지가상승률 최고수준 서귀포시 강정동 호텔 개별등기 분양



호텔 투자의 장점

1. 공실이 생겨도 수익금 지급
2. 관리비? *NO!*
3. 한시적 법안으로 추가 공급 제안
4. 나만의 별장처럼 *무료 이용*

호텔 투자시 고려사항

1.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
2. 시행사 / 운영사의 관계
3. 현실적인 객실요금과 가동률
4. 다양하고 풍부한 투숙객층

시행사보유분 10채 한정 특별혜택 분양









실투자금 **2,500**만원이면
통장으로 매월 **92**만원 씩!

분양가	1억 4천 8백 만원
중도금대출	9700만원
잔금	4800만원
보증금	500만원
특별혜택	1000만원
연수익	1100만원
대출이자	340만원
연순수익	760만원
실납입잔금	900만원
수익률	30%

*1채 분양, 중도금대출 60%, 이율 3.5%의 경우(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월세를 못받으실까 걱정되시나요?

임대차 계약서 발행으로
월세 확정 보장!

호텔 객실 지정 방법

1. 문의전화 후 상담 진행
2. 아래 계좌로 신청금 입금
3. 선착순 객실 배정

신청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 농협 351-0692-3177-83
예금주 : (주)한국자산신탁
미계약시 신청금은 100% 환불됩니다.

문의전화 **1566-5138**

시행사 호텔 윈 서귀포 · 시공사 청산종합건설(주) ·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 · 운영사 CSD 매니지먼트

호텔개요 · 대지위치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162-1, 2, 3 · 용도 : 숙박시설, 근린상업시설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10층 · 객실 수 : 260실

날개 꺾인 항공株, 유가하락에 '깜짝 반등'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2분기 '적자' 소식에 주가 '급락'
국제유가 6년 만에 최저치…주요 항공주 소폭 상승전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들 항공주는 올해 2분기 어닝쇼크에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서 이미 큰 폭 하락한 상태다. 날개 꺾인 항공주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0.2%(10원) 오른 5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항공은 0.47%(150원) 상승한 3만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저가항공사를 갖고 있는 한진칼과 티웨이홀딩스는 각각 0.22%(50원) 오른 2만3050원, 4.49%(430원) 상승한 1만원을 기록했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물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1.82 달러(4.3%) 하락한 40.8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2일(40.46 달러) 이후 최저치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 브렌트유 10월물 선물가격도 배럴당 47.16 달러로 1.65 달러(3.4%) 내렸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공급 과잉 우려가 확산되면서 낙폭이 커졌다.

국제유가가 6년 만에 최저치로 낮아지면서 항공주는 유류 비용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감에 반등했다. 다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세란 호재를 만난 가운데서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주가가 2분기 실적악화, 신용등급 강등 등에 하락했다가 유가 급락 소식에 깜짝 반등했다. /각사 제공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연결기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1조333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14억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도 영업손실이 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실적 악화 탓에 항공사들의 신용등급도 강등됐다. 지난 19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앞서 17일에는 한기평과 NICE신용평가가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내렸다.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항공기 구입에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됐다.

양대 항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에 주가도 급락했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4.01%(190원) 내린 5030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도 6.42%(2200원) 하락한 3만2050원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약세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3만17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주가는 한 달 사이에만 각각 23.98%, 17.43% 하락했다.

증권업계는 항공사들의 목표주가를 낮추면서도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조병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의 목표주가를 8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지나가고 9월 이후에는 외국인 입국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 여객 성장성과 낮은 유가에 따른 유류비 절감이 하반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재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목표가를 5만7000원으로 낮추고 "3분기는 전형적인 항공운송산업의 성수기이고 메르스 악재에서 벗어났다"며 "최근 유가도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스크린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1910대 추락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910선으로 내려왔다. 지난 17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4.83포인트(1.28%) 내린 1914.55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약 7개월 전인 지난 1월 16일(1888.13)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날 지수가 하락한 것은 중국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뉴욕증시의 하락세가 투자자 매도심리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인이 3000억원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지난 5일 이후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개인도 383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도왔다. 반면 기관은 2896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다.

비금속광물이 6.56%나 급락한 가운데 건설업, 기계, 철강금속, 의료정밀 등도 2~4%대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 KT&G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일제히 떨어졌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1.30%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2%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3.84포인트(2.06%) 급락한 656.7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4월 2일(종가 650.5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6억원, 133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463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4.76% 급락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는 동서, 메디톡스, 로엔 등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네이버, 3분기 실적개선 전망에 주가 '꿈틀'

"라인 사용자 지표 꾸준히 성장… 중요한 광고플랫폼 될 것"

최근 주가 하락에 몸살을 앓아온 네이버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전일 대비 2.91% 하락한 50만1000원에 마감해 50만원 선마저 위협받았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네이버 주가는 한 번도 50만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처럼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하락한 것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어든 1672억원, 매출액은 13.8% 감소한 780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평균인 2135억원, 7907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민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한 것은 라인게임 흥행작 부재, 일본 포털 광고 매출 감소 등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과 부진 때문"이라며 "라인 택시, 라인 뮤직 등 서비스와 믹스라디오 등 신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용 증가의 영향도 컸다"고 진단했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2분기는 서비스 재정비의 시기였고,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보다 개선되겠지만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지출이 계속돼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다시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네이버의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이달 들어 네이버의 주식을 435억원 어치 사들였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올 하반기에 이익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7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 증가할 전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매출 감소로 네이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내년 상장을 준비하는 라인이 고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출 감소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라인 사용자 지표는 꾸준히 성장 중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도 "올 하반기에는 신규 수익 모델도 대기하고 있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 기자

유안타증권, 후강퉁 주식 담보대출

유안타증권은 오는 21일부터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후강퉁 주식을 담보로 최대 55%까지 대출 가능한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는 국내주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가능 주식은 계좌에 예탁된 상해A/홍콩H 주식 중 유안타증권이 정한 종목으로 평가금액의 최대 55%(40%~5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90일(심사 후 연장 가능)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고객그룹별 차등 적용되며 담보유지비율은 140%이다. 담보평가와 관리, 대출상환은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해A/홍콩H 주식을 보유한 유안타증권 고객 중 대출 약정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점 또는 홈페이지, HTS에서 신청 가능하다.

남상우 Retail금융팀장은 "상해A 주식은 권리발생 공시에도 일정 기간 거래정지가 되어 투자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긴급자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조선업 부실에 수출입銀 건전성 악화

BIS자본비율 국내은행 중 '꼴찌'… '1등급' 턱걸이
대우조선·경남기업 등 부실 여신 1조3천억원 넘어

올 상반기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자산건전성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0.01%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18개은행 중 최하위로 은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에 턱걸이 한 수준이다.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등을 포괄하는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수은의 총자본비율은 작년말 10.50%에서 지난 3월말 10.33%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조선과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과 부실 여신이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거래 기업 중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로 간 경남기업, 팬오션, 극동건설 등 108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은의 여신은 1조3337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이 가운데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남은 여신은 아직 처리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18개 국내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소폭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08%로 3월 말보다 0.15%포인트 개선됐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11.64%와 11.11%로 각각 0.15%p, 0.10%p 올랐다.

총자본 비율이 상승한 것은 총자본 증가율(2.5%)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1.5%)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총자본은 당기순이익 발생과 증자,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등으로 2분기 중 4조7000억원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16.96%)과 국민은행(16.40%)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수출입은행과 수협(12.10%)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북(7.69%), 경남(7.81%), 기업(8.59%), 우리(8.71%)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기간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65%, 11.37%, 10.74%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별로는 KB(15.85%)와 SC(14.52%)의 총자본비율이 높았고 BNK(11.37%), JB(12.38%), 하나지주(12.51%)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여건 악화와 수익성 부진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우리은행, '우리삼성페이' 서비스 출시 우리은행은 20일 은행 계좌만으로 가맹점 결제와 ATM출금이 가능한 '우리삼성페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 입출식 통장을 보유하고, 모바일결제플랫폼인 삼성페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소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은 별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좌는 최대 10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우리은행 제공

KB국민은행 "금융·업무서비스, 한번에 OK"

기업 플랫폼 '비즈 스토어' 선봬

KB국민은행은 20일 금융과 업무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된 기업 핀테크 플랫폼 'KB 비즈스토어(bizstor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업의 계좌관리와 자금이체, 외화송금 등의 금융 업무와 전자결제, 일정관리 등 기업 내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업 핀테크 자금 관리 서비스다.

특히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 제공으로 PC나 모바일 등 장소와 기기에 구애 받지 않는다.



또 계좌 관리를 위한 뱅크누리앱, 기업카드 지출결의 앱, 기업 내 게시판을 포함한 그룹웨어 앱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앱도 제공한다.

한편 KB비즈스토어 1호 가입 고객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사와 전국11개 지부의 월 1만5000건에 달하는 지출업무와 저작권료 수납에 대한 자금관리와 그룹웨어 기능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핀테크 관련 서비스가 지급 결제 위주의 개인(B2C)이 대상이었다면, 이번 서비스는 기업(B2B)을 위한 최초의 핀테크 상품"이라며 "그 동안 기술과 비용 문제로 자금관리 및 그룹웨어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아란 기자

신한카드 "해외 진출 가속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20일 신한카드는 인도네시아 '살림그룹(Salim Group)'의 자회사 '스와달마 파이낸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여신금융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스와달마 파이낸스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 수준인 살림그룹 계열 MFC(Multi Financing Company)로, 현재 법인 대상 할부, 리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지난 해 중순 경부터 인도네시아 시장 분석과 파트너십 체결 검토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합작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전국적인 리테일 네트워크를 갖춘 살림그룹과 제휴하게 됐다.

신한카드는 50%+1주를 획득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도 선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지분 인수 안건을 승인하고, 26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휴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양국 금융감독당국 승인 등을 거쳐 11월 초 합작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국내에서 30년 가까이 축적한 여신금융 사업 노하우와 살림그룹의 인도네시아 내 리테일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30만 명에 이르는 살림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합작법인의 기반 다지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현지 사업 인가를 획득해 내년 하반기 경 신용카드업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등 해외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계획중인 신용카드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 향후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 주유·교통·자동차 혜택 '한 장에'

'타고 싶은 카드' 출시

우리카드는 주유·교통·자동차에 특화된 '타고 싶은 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유부터 교통, 자동차에 관한 보험, 정비 등 모든 서비스를 한 장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유사상품들의 경우 주유특화 또는 대중교통 특화 등 상품별로 혜택이 분리돼있었다. 고객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월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리터당 60원 할인을, 70만원 이상 시 주간에는 리터당 80원, 야간(0시~6시)에는 리터당 1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연간 바우처로는 SK모바일 주유권 3만원권이 매년 제공된다.

대중교통에서는 버스·지하철·택시·고속버스·KTX 등 주요 교통수단 이용시 1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특화 서비스로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무료 교환, 차량정비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비 50% 할인, 타이어교체 및 자동차보험료 5~10% 할인, SK렌터카 40~70% 할인, 도심 주차장 주말 1일 무료주차 등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여기에 주요 공항 라운지·발레파킹 무료이용, 전국 지정 골프장 온라인 실시간 부킹, 그린피 예약 결제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대형할인점과 스포츠·아웃도어 업종 청구할인부터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카드 연회비는 5만원이다.

한편 우리카드는 '타고 싶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30일까지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주유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5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할부 제공, 스피드메이트 차량정비에 3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와이퍼 또는 엔진세정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SK렌터카 5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추가 청구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비자카드 스마트 쿠폰북인 프리즘앱을 통해 불스원몰, 카렉스몰 20%~40%의 할인쿠폰도 챙길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주유, 교통, 자동차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혜택까지 모두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카드'로서 주유나 교통비 지출이 많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월세 100만원… 주택 안정화 대책 '삐걱'

뉴스테이
일부 지구서 '황제 월세' 지적
3.3㎡당 전환가 569만원 비싸

행복주택
주민 반발에 해제 잇따라
LH 재정난에 사업 지연도


유일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뉴스테이정책 추진계획 설명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테이 사업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행복주택 등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지난 1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민간업체가 중산층 이상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대림산업이 이달 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도화'(뉴스테이 210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만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뉴스테이 주택은 월 임대료가 100만원에 달하는 등 기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 서울 신당동에 공급될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35㎡에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됐다.

서울 신당동의 뉴스테이도 보증금 1000만~1억원, 월 65만~100만원의 임대료가 확정됐다. 3.3㎡당 월세 전환가는 1848만원에 달한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인근 3.3㎡당 월세 전환가(1279만원)보다 569만원이 비싸다.

업계입장에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통과된 뉴스테이법이 야권과 입주민의 반발로 법안 일부가 건설업체에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뉴스테이법은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결국 ▲토지 수용조건 강화(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지구 조성 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보다 후퇴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이 기존보다 후퇴하면서 건설사의 이점이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는 '브랜드' 이름이 붙은 뉴스테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행복주택도 사업추진이 더디다. 일부 시범지구가 주민반발로 해제되는 등 당초보다 사업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목동(1300가구)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했다. 이 밖에도 공릉지구(100가구)와 송파지구(600가구), 잠실지구(750가구)가 시범지구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어 안산신길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하남감북지구 등도 사업성 악화로 추진을 미루고 있다.

특히 해제된 목동과 잠실·송파지구부지는 홍수 방지용 유수지로 홍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뉴스테이는 정부가 국고를 동원해 건설사가 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책일 뿐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변시세와 다르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서 뉴스테이를 신청할 수 있는 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뉴스테이 담당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임대료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뉴스테이라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초기인 만큼 건설사에게 일정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이는 프랑스나 일본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발코니 확장·방충망 청소 '공짜'

대림 'e편한세상 도화'
시공·시설관리·청소 등
다양한 입주서비스 제공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도화'에 청소 등 다양한 입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림산업은 이달 말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에 다양한 입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코니 무상 확장과 가구 내 렌지후드 필터, 전등갓, 비데, 에어컨 필터 등은 입주 후 2년과 4년, 6년차에 무상 청소를 실시한다. 가구 내 앞뒤, 발코니 외부 유리와 방충망 청소도 무상(4년차)으로 제공된다.

입주 2·3·4년차에는 단지 내 잔디 깎기와 지주목 철거를 통해 병충해를 방제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화분갈이 서비스(유상)를 통해 화초재배 기초교육, 배양토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체, 사회적 기업과 공동으로 이사, 세탁, 애견돌보미, 인테리어, 가구렌탈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저렴한 가격에 운영한다.

분양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시공은 물론 운영과 시설관리, A/S까지도 회사가 직접 책임 운영·관리한다"며 "지역주민과 손잡고 이사, 세탁, 가구렌탈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3개블록, 2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로 구성됐다. 블록별로는 ▲5블록(뉴스테이 932가구) ▲6-1블록(뉴스테이 1173가구) ▲6-2블록(공공임대 548가구) 등이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 남구 숙골로 113 일대 청운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오는 28일 남구 도화동 73-3 도화오거리 인근에 마련된다. /김형석 기자

강남까지 30분 생활권… 2021년 GTX 개통

포스코건설
'기흥역 더샵' 견본주택 오픈


'기흥역 더샵' 투시도.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오는 21일 경기도 용인 '기흥역 더샵'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흥역세권 3-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7층, 7개동, 총 1394가구 규모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2~172㎡ 1219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 175실이다.

전용면적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72A㎡ 88가구 ▲72B㎡ 140가구 ▲72C㎡ 139가구 ▲84A㎡ 587가구 ▲84B㎡ 131가구 ▲94㎡ 131가구 ▲172㎡ 3가구(펜트하우스) 등 총 7개 주택형이다. 오피스텔은 ▲59A㎡ 50실 ▲59B㎡ 50실 ▲59C㎡ 25실 ▲59D㎡ 50실 등 총 4개 타입이다.

분당선과 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정자역까지 10분대, 강남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구성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0분대 도달할 수 있다.

단지 남측에는 용뫼산과 남부CC, 어린이 공원(예정), 오산천 등이 위치하고 있다. 기흥역 인근에는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으로 구성되는 AK플라자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구 내에는 오는 2018년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반경 1㎞ 내에는 신갈초, 성지초·중, 기흥중, 신갈중, 신갈고, 기흥고 등 10여개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견본주택은 분당선 죽전역 1번 출구 인근(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003-111번지)에 마련된다. /김형석 기자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 10월 분양

삼성물산
12개동 1009가구 규모

삼성물산은 오는 10월 서울 동대문구에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12개동, 전용 59~123㎡, 총 1009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전용 ▲59㎡ 151가구 ▲75㎡ 39가구 ▲84㎡ 358가구 ▲123㎡ 36가구 등 584가구다.

'미드카운티'의 뜻은 중심을 의미하는 미드(Mid)와 자치주(州)를 의미하는 카운티(County)를 합성한 것이다. 향후 교통·교육·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춘 강북권 중심지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신답역, 1호선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2022년에는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현장 홍보관(웰컴라운지)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496-1번지 우신빌딩 3층(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삼성, 체질개선 몸부림…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SDI, 27일부터 경영진단 착수
대규모 인력 재배치 가능성
삼성엔지니어링도 소문 무성

삼성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고강도 경영진단은 물론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며 체질 개선에 힘쓰는 모습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20일 "이달 27일부터 회사 경영진단이 시작된다"며 "고강도 진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삼성SDI의 경영진단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영진단이 마무리 된 뒤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미정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SDI는 배터리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 배터리 사업에 발목 잡힌 삼성SDI는 영업손실 3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증권업계는 지난 2분기에 삼성SDI가 배터리 사업에서 975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삼성SDI의 경영진단이 배터리 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개발은 물론 마케팅·판매 등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뜯어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수요사장단회의 참석을 위해 서초사옥을 찾은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삼성SDI 내부에서는 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성 경영진단을 받는 만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수주가 줄어들고 있어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합병을 시도하면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합병 실패 후에도 삼성엔지니어링은 수주물량 축소와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설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삼성전기는 일부 사업 중단과 분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6월 하순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HDD 모터사업 생상·판매 중단을 결정한 삼성전기는 지난달 초 파워·튜너와 전자가격표시기(ESL) 사업의 분사를 결정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 결정된 자산과 인력은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의 신설법인에 양도된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신설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삼성전기는 몸집을 줄였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갤럭시노트5, 현존 최고의 디스플레이"

美 디스플레이 전문가 평가
QHD 슈퍼아몰레드 '극찬'

갤럭시노트5에 탑재된 QHD(2560×1440) 슈퍼아몰레드가 미국 디스플레이 전문가 그룹인 디스플레이메이트의 화질 평가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종합점수 '엑설런트(Excellent) A'를 획득했다.



갤럭시노트5 디스플레이메이트 화질평가 결과.

20일 디스플레이메이트 디스플레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노트5는 주요 평가 항목인 화면 밝기, 색 정확도, 소비전력 면에서 기존 기록들을 경신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메이트는 갤럭시노트5가 전작인 갤럭시노트4는 물론, 반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S6의 성능을 뛰어넘으며 디스플레이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끌어올렸다고 극찬했다. 5.7인치 QHD급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를 탑재한 갤럭시노트5는 해상도와 사이즈는 전작인 노트4와 동일하지만 밝기, 반사율 등 야외시인성 관련 성능과 전력효율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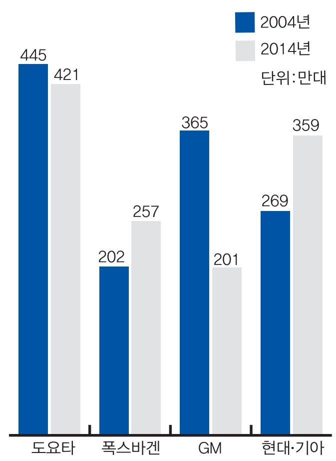
디스플레이메이트는 지난 2010년 본격적인 AMOLED 스마트폰 출시 이후 매년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보여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 해상도, 밝기, 야외시인성, 전력 효율성, 색 정확도 등 디스플레이의 성능과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이제 AMOLED가 LCD를 능가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메이트는 "차세대 모바일 디스플레이로서 AMOLED의 기술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해 갤럭시노트4 엣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플렉서블 엣지 디스플레이 기술이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 디스플레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진 기자

현대·기아차, 자국 생산증가량 글로벌 1위

10년 새 90만대·33.5%↑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10년 간 토요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보다 자사의 자국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세계 자동차 통계, 업체별 사업보고서, IHS오토모티브 등에 따르면 2004년 한국에서 269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현대·기아차는 2014년 359만대의 완성차를 국내에서 만들었다. 10년 새 국내 생산량이 90만대 늘었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의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량 증가율은 33.5%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는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보다 높은 자국 생산 증가량과 증가율이다"며 "10년 동안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은 국가 경제기여도가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량은 2004년 135만대에서 2014년 153만대로 13% 증가했다.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은 같은 기간 27만대에서 28만대로 늘었다.

전주공장은 같은 기간 5만105대에서 6만9577대로 40% 증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04년 18만4000대에서 2014년 53만8000대를 기록했다. 10년 동안 생산량이 3배 올랐다.

기아차 화성공장 생산량은 같은 기간 47만대에서 56만대로 19% 늘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25만대에서 32만8000대로 31% 증가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해왔고 올해는 9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올해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838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또 금형·보전부문 생산전문 기술인력도 2011년부터 매년 70~80명씩, 현재까지 300여명을 채용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LG '올레드 TV'로 중동 프리미엄 시장 노크

두바이서 신제품 발표회
'완벽한 블랙·컬러' 강조

LG전자가 올레드 TV를 앞세워 중동지역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현지 거래선, 취재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트라 올레드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완벽한 블랙, 완벽한 컬러'로 정하고, 77·65형·55형 '울트라 올레드 TV' 3종(77EG9700, 65/55EG9600)을 선보였다. 중동시장에서 울트라HD 해상도를 적용한 LG 울트라 올레드 TV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올레드 TV로 중동 프리미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LG 울트라 올레드 TV 신제품 발표회'에서 차국환 LG전자 중동아프리카지역대표(전무)가 중동 거래선 대표들에게 울트라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LCD TV와 달리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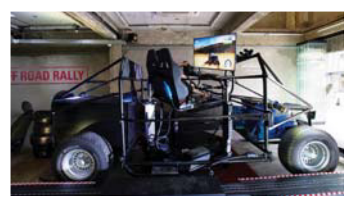
또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레드 TV는 현존하는 TV 가운데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구현할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차국환 LG전자 중동아프리카지역대표(전무)는 "전 세계 TV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동 프리미엄 시장에서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로 정면 승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압도적인 화질로 중동 시장에서 진정한 프리미엄 TV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unj71@

QM3 폐차 '아트'로 재탄생
젠틀몬스터 매장 리사이클링

르노삼성자동차가 젠틀몬스터에 무상으로 제공한 QM5 폐차량이 9월 14일까지 홍대 퀀텀 매장에 전시(사진)된다.



제공 차량은 홍대 퀀텀 매장 내 4D 시뮬레이터를 감싸는 하부 프레임부분과 엔진, 운전석 시트 등이 활용돼 전시 중에 있다.

르노삼성은 전국 교육기관에 총 423대의 차량과 701대의 엔진, 461대의 트랜스미션을 지속적으로 무상지원하며 자동차 공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자동차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애매한 세그먼트 탈리스만… 아슬란되나

르노삼성 "SM5·SM7에 판매 간섭 없다"


르노 탈리스만. /르노삼성 제공

르노삼성자동차가 내년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할 플래그십 세단 탈리스만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탈리스만을 베이스로 개발될 새로운 모델이 SM5 또는 SM7 판매에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탈리스만은 SM5 또는 SM7의 후속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탈리스만의 축간거리(휠베이스)와 전폭(너비)은 각각 2810㎜, 1870㎜로 르노삼성 대형 세단인 SM7과 같다. 전장은 SM7(4995㎜)보다 145㎜ 짧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탈리스만이 SM7의 후속 모델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최고출력 200마력의 힘을 내는 탈리스만의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SM5 1.6리터 가솔린 모델과도 제원이 비슷하다. SM5 1.6리터 가솔린은 190마력의 힘을 낸다. 또 SM5의 전장(4885㎜)도 탈리스만의 전장과 35㎜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처럼 애매한 차급의 탈리스만은 이 회사의 다른 차를 팔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그랜저의 차체와 제네시스의 옵션을 반영한 아슬란을 지난해 10월 출시해 대형 세단의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아슬란 3.0리터 가솔린 모델과 그랜저 3.0리터 가솔린 모델의 휠베이스, 최고출력, 최대토크는 같다. 연비는 아슬란이 뒤처진다. 그럼에도 아슬란의 가격은 그랜저보다 600만원 가량 더 비싸다.

아슬란은 출시 당시 월 1800대 판매목표를 제시했으나 지난 7월 612대가 팔렸다. 전월보다 20.6% 판매량이 줄었다. 이처럼 애매한 세단 차급은 애매한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르노삼성은 탈리스만의 간섭 없이 SM5·SM7의 판매량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SM5·SM7은 내수시장에서 각각 1만5404대, 2382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모두 13.5%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새로운 고객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SM5·SM7의 수요가 탈리스만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르노삼성은 잃는 장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 1~7월 르노삼성은 내수시장에서 SM5·SM7·QM3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만3960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5만3620대)에 밀려 5위를 기록했다.

판매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르노삼성 기흥중앙연구소에서는 1000여명이 연구원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탈리스만의 성공 요건으로 확실하게 구별되는 세그먼트 출시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편의 사양 등을 꼽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탈리스만을 베이스로 놓고 새로운 세그먼트 차량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차명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 SM5·SM7에 판매량에 간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두산, 임금피크제·정년 60세 도입 완료

모든 계열사서 마무리

두산그룹이 모든 계열사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DST, 두산캐피탈, 오리콤, 네오플럭스, 두산타워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데 이어 최근 ㈜두산 내 일부 BG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확정했다.

국내 주요 그룹 중 두산만큼 조기에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곳은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측의 희망일 뿐 아직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

SK그룹도 임금피크제를 모든 계열사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현대차그룹과 비슷한 상황이다.

두산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용만 두산 회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산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장 초기부터 도입을 준비해 원만한 노사 합의로 지난해까지 대부분 도입을 마쳤고 올해 나머지 계열사도 마무리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범기업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임금피크제를 한 지난해 358명을 신규 채용했다.

전년(154명)보다 신규 채용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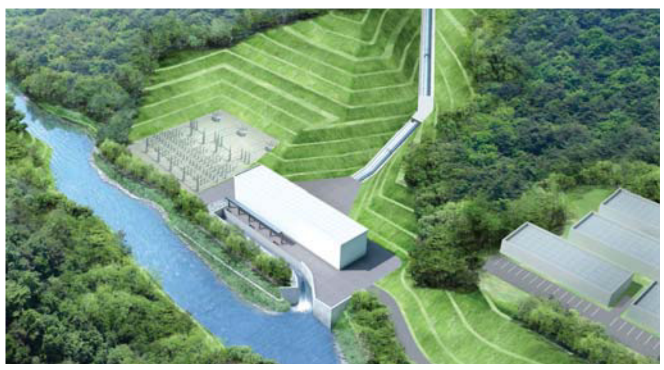
아울러 두산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도 모든 계열사에 적용한다.

두산중공업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지난해까지 기술직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사무직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각각 연장했다.

/정용기 기자

LG상사, 인니서 수력 발전사업 추진

산업 인프라 사업 박차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 발전 조감도.

LG상사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문 기업 티탄그룹과 함께 41MW 규모의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 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토바 지역의 약 70만㎡(약 21만평) 부지에 들어설 이 발전소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가지며 직접 운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민자발전사업(IPP)으로 LG상사가 시설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된다.

LG상사는 지난해 티탄그룹과 주주간 합의서 체결로 보유 지분 51%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현지 인허가, 토지 보상, 전력구매 계약, 금융 조달, 공사 착공 및 발전소 운영에 이르는 사업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발주처인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PLN)와 30년 장기 전력구매 계약(PPA)을 마무리 지었다.

하상 수력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패스트 트랙 2 프로그램'에 반영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한편 LG상사는 최근 물류, 발전 등 자원 사업과 연계한 산업인프라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자재가 하락 장기화 국면이라는 사업환경에 적응하고, 기존 자원 및 트레이딩 사업과 함께 산업인프라 사업을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서 추진하는 발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오만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 관련 추가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unj71@

아시아나항공,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후원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20일 서울 방화동 소재 강서장애인부모회에 강서구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전달했다.

강서장애인부모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 본부장과 이은자 강서 장애인 부모회 회장이 참석했다.

강서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서구청 보건과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혼자 물건 사는 법 등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응 훈련에 쓰이게 된다. /이정필 기자

LS그룹, 대학생 해외봉사단 베트남 파견


20일 LS대학생해외봉사단에 참가한 대학생이 베트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열고 있다. /LS그룹 제공

LS그룹(회장 구자열)은 11일부터 22일까지 약 12일간의 일정으로 국내 대학생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50여명의 'LS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베트남으로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전지보트, 자가발전 손전등 등을 직접 만드는 과학교실을 열고 각종 환경과 위생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 시설 보수, 태권도·K-POP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나눴다. LS그룹은 2013년부터 대학생 봉사단 파견 지역에 'LS드림스쿨' 초등학교를 짓고, 완공 후에는 운영권을 지역 인민위원회에 제공해 왔다. /임은정 기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WOLFGANG AMADEUS MOZART

DIE ZAUBERFLÖTE

타미노 나승서   파미나 박미자   밤의여왕 오미선
파파게노 김동섭   자라스트로 장영근   파파게나 김문희

모노스타토스 김동섭 1st 시녀 김윤지 2nd 시녀 이미선 3rd 시녀 류현수
변사 김대엽 1st 무사 최경일 2nd 무사 김준한 천사 이민지 신소연 안지혜

지휘 서희태   연출 이의주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시흥시립합창단

2015. 9. 19(토) 7:30PM / 9. 20(일) 5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시흥시 SIHEUNG CITY 빙그레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최태원, 광폭행보 울산서 경제활성화 모색

그룹내 최대규모 사업장 찾아 임직원 격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패기 DNA 재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분 단위 현장경영'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R&D센터, 이천 반도체사업장을 방문한 최 회장은 울산으로 자리를 옮겨 또 다시 위기극복·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SK그룹은 20일 최 회장이 1박2일 일정으로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찾은 울산 콤플렉스는 석유·화학 사업장이 있는 곳이다. SK그룹의 최대 매출을 차지하는 곳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정유·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지역이다. 최 회장은 이날 울산 콤플렉스에서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을 비롯해, 김준 SK에너지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이기화 SK루브리컨츠 사장, 이양수 울산콤플렉스 부문장 등 관련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을 만나 위기극복 노력을 격려하고 경제활성화에 울산 콤플렉스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로써 최 회장은 경제활성화 화두인 창조경제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SK그룹의 경제활성화 3대 핵심지까지 모두 돌아봤다. SK그룹내 3대 핵심지는 그룹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대전 R&D센터와 최대 투자 관계사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최대 규모 매출 발생과 국가경제 핵심 기반산업인 울산 콤플렉스 등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20일 울산 콤플렉스를 방문해 공장장 등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울산 콤플렉스를 찾은 최 회장은 최근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정유·석유화학 사업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구성원들을 일일이 찾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비록 지난해 37년만에 불가피한 첫 적자를 냈지만 정철길 사장 이하 전 구성원들이 대동단결해 의미 있는 실적개선을 이뤄낸 것을 보고 우리에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패기 DNA'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 주고 있는 임직원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울산콤플렉스 현장경영에 이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들러 창조경제 현장도 직접 볼 예정이다. SK가 지원하는 센터가 아닌 다른 기업이 후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것은 지난 18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SK는 최 회장의 이 같은 방문에 대해 "SK가 지원하는 곳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향후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가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SKT, 5G 선도 전략 발표

美 인텔 개발자 포럼 참석

SK텔레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18일부터 3일간 열린 인텔 개발자 포럼(IDF 2015)에 참석해 선도적인 5G 기술 개발 성과와 혁신적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로 20년 째 열린 인텔 개발자 포럼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개최하는 기술 관련 행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전세계에서 수 천명의 개발자들이 모여 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 동향에 대한 전시·발표가 이뤄진다.

SK텔레콤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행사의 '메가세션'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최진성 SK텔레콤 최고기술경영자(CTO)는 미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세계적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함께 '5G 메가 세션'에 참석해 5G 네트워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솔루션을 공유했다.

또 SK텔레콤은 인텔과 에릭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공개 행사에도 초청받았다. 데이터센터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행사에 참석한 최 CTO는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를 적용한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 SDDC는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모든 구성 요소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상화하고 가상화된 인프라를 자동 통제·관리하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이다.

/정문경 기자

넥슨 "도미네이션즈 인기 亞서도 이어가겠다"

이달 말 아시아지역 출시
신규 문명 '한국' 공개

넥슨의 모바일 전략게임 '도미네이션즈'가 북미와 유럽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8월 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 된다. 이에 맞춰 넥슨은 게임 내에 신규 문명 '한국'을 추가한다.

20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넥슨 모바일데이'에서 유휘동 넥슨 모바일사업본부 실장은 "도미네이션즈는 모바일에서도 PC에서 느꼈던 전략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개발됐다"며 "기존 게임보다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전략게임"이라고 소개했다.

도미네이션즈는 8월 공개될 문명 한국을 포함한 총 8개의 독특한 속성을 지닌 국가들을 선택해 세계의 문명을 유저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바일 전략 게임이다.

올해 4월 초 글로벌 서비스를 개시 해 3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 두 달 만에 720만 건, 8월 초 기준 1000만 건을 각각 돌파하는 등 유럽과 북미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미네이션 개발사 빅휴즈게임즈의 CEO 팀 트레인. 20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모바일 데이'에서 팀 트레인은 도미네이션즈의 '한국' 문명 추가를 기념해 한복을 입었다. /넥슨 제공

넥슨은 이날 행사에서 도미네이션즈 아시아 지역 출시에 대한 포부와 시장 전략을 발표하고, 개발사 빅휴즈게임즈의 팀 트레인 대표가 참석해 '한국 문명에 대한 소개를 곁들였다.

팀 트레인은 "이번 아시아 지역 출시를 통해 한국 문명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 한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게임 내에서 방어력과 공격력을 겸비한 문명으로 구현했다. 한국 유저뿐 아니라 글로벌 유저들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미네이션즈는 8월 말 한국, 일본, 대만 지역에 안드로이드OS와 iOS버전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

SK브로드밴드, 새 인터넷데이터센터 개소

SK브로드밴드는 경기도 분당 오리역 인근에 'SKB 스마트 인터넷데이터 분당센터(IDC 분당센터)'를 마련하고 오픈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IDC 분당센터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제시스템인 스마트 IDC 플랫폼이 적용됐다.

스마트 IDC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트래픽 분석을 통해 기존 트래픽 관제에서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서버별 감시, 서비스 성능 이슈 사전 탐지, 실시간 악성 코드 탐지 차단 등 다양한 관제·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객은 원하는 관제와 보안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웹과 모바일 접속을 통하여 관제·보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IDC 분당센터는 서초 1·2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와 일산 IDC 센터에 이은 네 번째 IDC센터로 총 연면적 1만1600㎡(약 3500평)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다.

/정문경 기자

갤노트5·S6엣지+ 국내 상륙

구매가 최저 57만원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면 갤럭시노트5는 최저 57만원에, 갤럭시S6엣지+는 최저 61만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월 10만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시 갤럭시노트5 32GB 모델과 갤럭시S6엣지+ 모델에 각각 28만5000원의 공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주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고려하면 갤럭시노트5는 57만2050원에, 갤럭시S6엣지+는 61만1650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16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 때 갤럭시노트5는 70만6600원, 갤럭시S6엣지+는 74만6200원이 된다.

SK텔레콤은 월 10만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시 24만8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준다.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갤럭시노트5 판매가는 61만4600원, 갤럭시S6엣지+ 구매가는 65만4200원이다.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13만7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준다.

KT는 월 9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시 28만1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5는 57만6650원, 갤럭시S6엣지+는 61만6250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월 5만9900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시 공시지원금은 17만원이다.

/정문경 기자

삼성家 비운의 장남 '마지막 길' 외롭지 않았다

고 이맹희 영결식 엄수
장남 이재현도 입관실 찾아
이재용 등 범삼성가 총출동



故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영정과 위패가 20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으로 운구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 14일 별세한 '삼성가(家) 비운의 황태자' 고(故) 이맹희 CJ명예회장이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 하고 영면했다.

영결식은 20일 CJ인재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엄수한 운구행렬은 오전 8시께 서울 필동 CJ인재원으로 이동해 영결식을 가졌다.

이 명예회장은 동생인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긴 뒤 해외를 떠돌며 외로운 삶을 산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지만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빈소를 지키지 못했던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발인 직전 입관실(시신안치실)을 찾았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운구된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께 입관식 후반부에 참석한 데 이어 발인 전인 19일 오후 11시30분께 다시 한 번 시신 안치실을 찾아 아버지와 영원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감염우려 때문에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장자의 도리를 다하고자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CJ그룹 측은 설명했다.

병환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제외한 범삼성가의 친인척들도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부인 홍라희 여사와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한솔은 이인희 고문이 등이 참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 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동건 아나운서, CJ그룹 경영진 등도 영결식에 함께했다.

추도사를 맡은 김창성 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고인은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 곁에서 제일제당,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전관 등 설립에 함께 하면서 초기 삼성그룹의 성장에 크게 일조했다"며 "CJ그룹의 근간이 된 제일제당의 출발을 이끌며 탄탄한 기틀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온 마음 약한 아버지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고독한 삶을 자처했고 이런 삶이 불러온 세간의 오해 또한 묵묵히 감내한 큰 그릇의 어른이었다"고 추모했다.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은 이날 영결식을 마친 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살았던 장충동 자택에 10여 분간 머문 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가족 사유지인 연하산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문상객 차별한 CJ그룹장(葬)

기자 수첩
정 은 미
<생활유통부>

지난 14일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20일 영면에 들어갔다.

CJ그룹은 고 이 명예회장의 장례를 그룹장으로 치르고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엄수했다. 또 같은 날 CJ인재원으로 이동해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영결식을 가졌다.

고 이 명예회장은 삼성에서 제일제당이 계열분리 된 이후로 CJ의 경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계열사 분리전 CJ의 모태인 제일제당의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CJ그룹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빈소 조문을 비롯한 영결식 등에는 CJ 직원들과 일반인은 배제된 채 소수의 친인척과 정치인·재계인사·연예인 등만이 참석이 가능했다.

지난 17~19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 이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일반 조문객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직원들은 빈소 출입구에서 방문한 조문객의 신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내부 사람들에게 조문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들여보냈다.

이로 인해 고인과 절친했다고 말한 60대 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빈소 출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했다.

CJ그룹 직원들도 다를 바 없었다. CJ그룹은 분양소가 협소해 직원들의 조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고인이 모셔져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외에 서울 중구 필동 CJ 인재원에서 별도의 빈소를 마련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도 빈소 출입은 어려웠다.

고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지난 3일간 직원들은 조문객을 맞는 등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빈소 안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빈소를 지키던 한 직원은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빈소 내 출입은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역시 들어갈 수 없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비밀스러운 장례식에 대해 정재계 관계자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일반 조문객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면 처음부터 그룹장으로 치르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이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정재계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빈소 입구에서 돌아간 사람들의 행색과 직업이 평범할지 모르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을 터이다.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선보이는 모델들 20일 오전 서울 일민미술관 앞에서 모델들이 호주산 소고기를 활용한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의 중량을 늘린 '원조빅불', 국내산 한우를 활용한 '한우불고기버거'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자료 제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과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가져와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초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계열사 신고 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슈콤마보니' 中 5년 매출 1000억 목표

코오롱그룹의 패션사업 부문인 인더스트리Fnc(대표 박동문)은 20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중국 패션그룹 하선과 조인식을 갖고 2020년까지 슈즈브랜드 '슈콤마보니' 중국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오롱FnC는 슈콤마보니 제품을 공급하고 하선은 중국 판매를 맡는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슈콤마보니는 2003년 이보현 디자이너가 론칭한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로 지난해 말 45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신광백화점, 상하이 구광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입점이 확정됐다. 올해 매출 목표는 700억원이다. /박상길 기자

웅진 하늘보리, 웰빙지수 9년 연속 1위

웅진식품(최승수)은 보리차 브랜드 하늘보리가 9년 연속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차음료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웰빙지수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웰빙 수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상품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제도다.

웅진식품은 하늘보리의 1위 선정을 기념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를 연다.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하늘보리 500ml 제품 1박스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정은미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 현대百 판교점 오픈

축구장 두 배 크기 식품관 국내외 900여개 브랜드 입점

스마트쇼핑+복합문화공간 '新 쇼핑 패러다임' 선보여

수도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드디어 문을 연다.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15번째 점포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영업면적 수도권 최대 ▲교통 접근성 ▲축구장 2배 규모 식품관 ▲국내외 유명 브랜드 900여점 입점 ▲스마트 쇼핑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용인지역은 물론 서울 강남권과 경기남부권(안양·수원·여주·평택)을 커버하는 광역형 백화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판교점 건립에는 9200억원이 투입됐으며 개점에 따른 직간접적 고용인원만 3000명에 달한다.

판교점은 지하 6층~지상 10층으로 구성됐다.

연면적 23만7035㎡(7만1703평), 영업면적 9만2578㎡(2만8005평) 규모다. 영업면적은 수도권 백화점 중 가장 크다. 롯데 본점(7만㎡)보다는 25%, 분당 AK플라자(3만6478㎡)와 롯데 분당점(3만㎡)보다는 각각 2.4배, 3배가 크다.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6층에 있으며 2254대를 주차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입지적 강점과 교통망을 통해 1~2차 상권인 성남과 용인 외에 반경 20km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안양, 의왕, 광주, 수원, 동탄 등 3차 상권고객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개점 첫 해 매출 목표는 8000억원이다.

◆축구장 2배 규모(1만3860㎡) 식품관

판교점에는 축구장 2배 규모(1만3860㎡)의 식품관이 운영된다. 신세계 센텀시티(8600㎡)보다 1.6배 큰 규모로 축구장(7140㎡)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다.

식품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식자재 브랜드 이탈리(ETALY)다. 국내 1호점인 판교점은 디저트와 델리를 맛볼 수 있는 그랑바와 정통 이탈리안 음식이 제공되는 리스토란테로 구성된다.

▲디저트(커피, 젤라또) ▲델리(샌드위치, 포카치아) ▲파스타·피자 ▲음료(와인, 맥주) 등 14개 코너에 300석 규모로 운영한다. 이탈리아 빵과 올리브오일, 와인 등 약 1000여 개의 아이템도 판매한다.

식품관에는 미국 드라마 '섹스앤더 시티'를 통해 유명세를 탄 컵케이크 전문점 '매그놀리아'와 뉴욕 브런치 카페 '사라베스 키친', 그리고 덴마크의 대표 음료 체인점 '조앤더주스' 등 글로벌 브랜드도 대거 입점한다.

'몽슈슈 도지마롤 케이크'의 카페 형태인 '살롱 드 몽슈슈'를 비롯해 프랑스 마카롱 전문 브랜드 '피에르 에르메', 일본 셰프 '츠지구치 히로노부'가 운영하는 프랑스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 '몽상클레르'도 선보인다.

◆국내외 브랜드 900여 개 입점 … 해외명품 브랜드 83개 선보여

판교점에 입점하는 브랜드(식품 포함)는 900여 개로 15개 현대백화점 점포 중 가장 많다. 현대백화점 목동점(750여 개)보다도 150 여 개가 더 많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대백화점 내부. /현대백화점

특히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까르띠에 등 83개 해외명품 브랜드가 입점한다.

1차 상권인 분당, 2차 상권인 용인, 3차 상권인 수원 등 경기 남부상권 내 백화점과 비교하면 최대 80여 개 가 많다.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멀버리, 발리 등 46개 해외명품 브랜드는 경기 남부 상권에 처음 선보인다. 프랑스 의류·잡화 브랜드 '이치아더'와 프랑스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로프트 디자인 바이', 이태리 여성복 브랜드 '울트라시크'·'컬렉션프리베', 세계 3대 침대 브랜드 '사보이어(영국)' 등 37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입점한다.

김영태 사장은 "판교점의 하드웨어와 상품기획(MD) 경쟁력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마케팅을 통해 쇼핑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분당과 용인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안양, 수원, 동탄 등 경기 남부 전역으로 상권을 넓혀 쇼핑과 문화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식품관에 1000억원 투자"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



김영태(62·사진) 현대백화점 사장은 20일 오전 11시 5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현대백화점 판교점 그랜드 오픈'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우 3년전부터 식품군의 비중이 의류 비중을 앞섰다"며 "앞으로는 식품군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식품관은 백화점 불황에도 두 자리수 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관 구매율까지 높아 효자 상품군으로 꼽힌다. 특히 판교지역은 상권 내 고객 수준이 높고 구매력이 커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니즈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사전 조사 결과 분당 판교 소득 수준이 강남권의 92%로 파악됐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패션 트렌드도 강남권과 거의 유사했다.

김 사장은 "식품관의 경우 5년전에 땅을 먼저 매입했으며 4년전에 관련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관의 가장 큰 장점인 이탈리(ETALY)의 경우에는 2013년 말부터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규모 식품관 입점에 반발하는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위한 대책으로 복지재단사업과 문화정책 후원, 전통시장 팝업스토어 등을 내놨다.

김영태 사장은 "백화점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업종"이라며 "현대백화점복지재단사업을 전개해서 아동 장학사업이라든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위메프, 패션전문관 '에디터 픽' 오픈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패션전문관 '에디터 픽'을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디터 픽에서는 '제이어퍼스트로피', '샐러드보울', '바이바이섭' 등 한국 신진디자이너 80여개 브랜드의 500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이달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위메프 웹과 모바일의 '에디터 픽' 관, '보그'와 '지큐' 지면, 웹페이지 등에 소개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파리크라상과 함께하는 '샌드위치 피크닉'

파리크라상(대표 조상호)이 운영하는 정통 프랑스 샌드위치 브랜드 '리나스'는 해성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인천시 계양워터파크&피크닉장에서 '리나스 샌드위치 피크닉' 활동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방학을 맞아 여름철 야외활동의 기회가 적은 보육원 아동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파리크라상 임직원들은 리나스 샌드위치로 구성된 피크닉 도시락을 만들고 해성보육원 아동들과 1일 짝꿍이 되어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다. /정은미 기자



면으로 즐기는 100% 생두부 '누들두부'

대상FNF 종가집(대표 최정호)이 새로운 콘셉트의 두부제품 '종가집 누들두부'를 20일 출시했다. 가격은 80g에 2980원이다.

종가집 누들두부는 100% 생두부로 만든 면 형태의 제품이다. 제품에 포함돼 있는 참깨소스 및 오리엔탈소스를 넣어 간단한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밀가루 등 이 주 성분인 면을 대체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풀무원 제공

세븐일레븐, 지자체 인증상품 판매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지자체 인증 상품과 친환경 상품 위주로 구색을 늘려 500여종의 추석상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9일 경남 함양군을 방문해 '함양군 우수 농식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U 해외 디저트 상품 판매

BGF리테일(대표 홍석조)이 운영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 씨유(CU)는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쿄 바나나 (2만8900원)'와 '긴자 이치고 (2만8900원)' 등 일본 디저트 상품과 대만 디저트인 '수신방 펑리수(2만1000원)' 등을 무료 배송한다.

정관장 추석선물 예약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는 추석을 맞아 21~28일까지 정관장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내 사전 예약을 하고 9월 추석 프로모션 기간 결제하게 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정관장 멤버스포인트를 5% 추가 적립해준다.

턱 움직일때 "딱딱"… 턱관절장애 경고음

턱관절 장애 원인과 치료법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는 대부분은 크고 작은 이상 징후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만 잘 알아차려도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별 것 아닌 것으로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거나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은 턱관절 장애의 징후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턱관절 장애는 선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나쁜 자세, 턱 건강에 해로운 습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악화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은 "턱관절은 항상 일정한 힘을 받고 혹사 당하는 부위로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턱관절을 사용할수록 상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의 징후가 반복될 때는 정확한 진단 받는 것이 좋다"며 "만약 증상이 심해져 비대칭이나 부정교합까지 나타났다면 양악수술로 턱뼈를 정상적인 상태로 교정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쁜 자세·잘못된 식습관 원인
방치땐 뒷목·척추·허리도 위험
턱관절 손상 심하면 양악수술 필요

아래턱뼈와 머리뼈인 관자뼈를 연결하는 턱 관절은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강한 충격이나 잘못된 습관 등으로 턱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측두하악관절 질환', '악관절 장애' 등으로도 불리는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관절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한다. 턱근육 질환이나 턱관절 탈구, 턱관절 디스크 장애, 턱관절염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턱관절 장애는 턱에 강한 충격을 받거나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어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기는 습관, 턱을 괴거나 한 쪽으로만 씹는 습관, 이를 악 물거나 잘 때 이를 가는 습관 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뇌기능 장애나 스트레스처럼 심리적인 요인도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다. 선천적으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도 턱 관절의 부담을 가중시켜 턱관절에 문제를 만들 기도 하는데, 무턱(2급 부정교합)이나 안면비대칭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은 목과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턱관절 이상을 방치하면 뒷목이나 척추, 허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턱에서 '딱딱' 거리는 소리가 나고 두통을 동반한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다. 턱을 괴거나 이를 악 무는 습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턱관절 초기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교합안정장치와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턱의 기능에 영향을 줄 만큼 턱관절 손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선천적인 부정교합, 안면비대칭으로 턱관절 장애가 지속 되거나 턱관절염으로 턱뼈가 녹아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양악수술은 턱의 형태나 위치 이상 부정교합 등을 교정해 턱관절 기능 이상을 치료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수술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 차후에 또 다른 턱관절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다만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잘라 각각 바른 자리에 위치시키고 고정하는 고난도의 수술인 만큼 집도의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수술의 성패와 안전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수술 결과 예측이 가능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한 수술 시스템을 갖춘 병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와 협진이 잘 이뤄지는지도 따져 보는 것이 좋다.

◇ 도움말 :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50대 갱년기 남성 기력회복 필요

닥터 Q & A



나영철 원장
(황금사과한의원 갱년기 클리닉)

·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병리학 전공)
·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Q. 갱년기 우리남편, 치료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을 넘긴 남성들은 혹시나 큰 병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병원 방문을 꺼려한다. 한국사회의 중년 남성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감을 대부분 갖고 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여전히 젊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내면에서는 피로감과 불안감이 늘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갱년기가 온 남성은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 순간에 피로감은 증폭되고,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게 된다. 이는 여성 갱년기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남성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30대 후반부터 남녀의 자살률이 차이가 나고 50대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남성 갱년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 남성 갱년기야 말로 모든 남성들이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갱년기 치료를 꺼려하는 환자라면 기력회복, 피로회복 등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자고 해도 무방하다. 한의학의 갱년기 치료는 증상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 깨어진 수승화강을 회복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기력 또한 회복이 된다. 본인이 갱년기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에 치료를 꺼린다면 남편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로 일단은 내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갱년기 치료는 시기가 늦을수록 치료가 더디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성 갱년기는 필자의 경험으로 한방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며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에 더욱 치료를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갱년기를 극복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만족도가 높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꾸 잃어가는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도를 보였다. 남성성 회복만으로 인해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많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이대목동병원 '中 환자 유치' 지자체와 맞손

양천구-中 장춘시 조양구와 3자 협약



김승철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오른쪽 세 번째)와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김수영 양천구청장(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이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8일 양천구청 5층 열린참여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승철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박은애 기획조정실장 등 이화의료원 경영진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노원 부구청장, 이용화 안전행정국장 등 양천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대목동병원의 우수 의료기술을 중국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양천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이대목동병원과 서울시 양천구, 중국 장춘시 조양구와의 삼자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오는 24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중국 장춘시 조양구를 방문해 추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이대목동병원은 양천구청과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중국 장춘시 조양구 거주 환자들이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최치선 기자

한국장학재단, 오늘 킨텍스서 멘토링 콘서트

대학생 2400명 참여 차세대리더 육성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1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는 'Be the Hero'라는 주제로 2015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리더십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280여명의 기업 CEO 등 사회 각 분야 리더들과 2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한다. 콘서트는 리더십 특강, 18개의 맞춤형 역량개발강좌, 팀별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0년 5월 출범한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구 지도자급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발대식 행사를 가진 뒤 매달 한 번 이상 멘토링 활동을 해 왔다. 사회 리더들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대학들에게 전수하며 '신뢰, 창조, 소통'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

star bag

키이스트에 새 둥지



배우 **손현주**가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키이스트 측은 20일 "흥행력과 연기력, 여기에 신뢰성까지 두루 갖춘 배우 손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고 기대가 크다"며 전속계약 소식을 전했다.

'7년의 밤' 긍정 검토



배우 **장동건**이 영화 '7년의 밤'에 출연할 전망이다. 장동건 소속사 SM C&C 측은 2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동건이 영화 '7년의 밤' 출연을 제안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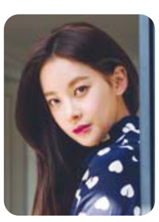
배우 **김우빈**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이경희 작가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가제)로 만난다.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악연으로 헤어졌던 두 남녀가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프로파일러 변신



배우 **이제훈**이 프로파일러로 변신한다. 내년 1월 첫방송되는 tvN 금토드라마 '시그널'의 주인공 박해영 역을 맡았다. 낡은 무전기를 통해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형사들의 이야기다.





'국가대표2' 캐스팅

배우 **오달수**, **오연서**가 영화 '국가대표2'(가제)에 캐스팅됐다. 오달수는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는 감독 역을 맡았다. 오연서는 쇼트트랙 출신 선수로 출연한다. 오는 10월 크랭크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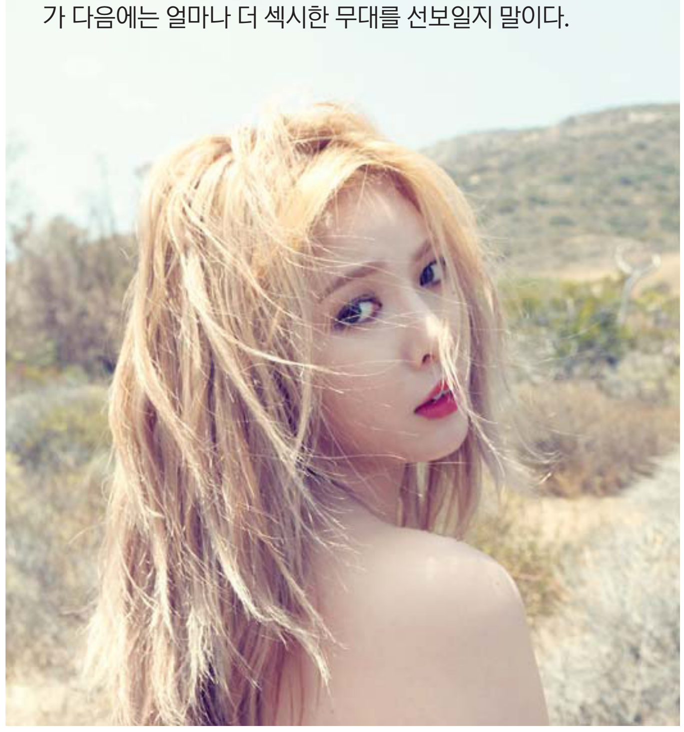




통통 튀는 섹시미로 기억됐으면

'잘나가서 그래'로 돌아온 **현아**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23)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섹시함이다. 솔로 데뷔곡 '체인지'를 시작으로 '버블팝' '아이스크림' 그리고 '빨개요'까지 현아는 늘 무대 위에서 섹시함을 당당하게 내세웠다. 그래서 대중은 궁금해 한다. 현아가 다음에는 얼마나 더 섹시한 무대를 선보일지 말이다.



21일 정오에 공개되는 현아의 미니 4집 음반 'A+'는 트레일러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한 것으로 현아는 도발적인 모습으로 파티를 즐기는 자유분방함을 표현했다. 표현수위가 너무 높다는 걱정 섞인 반응도 있었다. 지난 18일 인터뷰로 만난 현아는 "언제 이렇게 놀아볼까 싶은 마음으로 연기한 것인데 막상 찍은 걸 보니 수위가 세서 놀랐다"고 말했다.

"'잘나가서 그래'라는 타이틀곡을 받고 나니 제가 직접 잘 나가는 사람이 돼 제대로 놀아봐야 이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빌미 삼아 미국에서 화끈한 일탈을 했죠(웃음). 재미있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일탈을 꿈꾸지 않아요. 얼굴이 금방 빨개져서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냥 소탈하게 집에서 수박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해요."

타이틀곡 '잘나가서 그래'는 현아의 '빨개요', 그리고 포미닛의 '미쳐' 등을 만든 작곡가 서재우, 빅싼초 콤비와 손영진이 함께 작업한 노래다. 힙합의 하나로 미니멀한 사운드에 보컬 톤이 중심인 래칫(ratchet) 장르의 곡이다. "작곡가 오빠들끼리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나온 제목이래요. 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써준 노래죠. 여성을 대표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어요."

여성의 당당함 표현한 신곡 직설화법의 솔직함이 매력

섹시함도 스토리가 있어야 건강한 에너지 전하고 싶어

이번 곡을 위해 현아는 미국에서 3~4개월 동안 안무 트레이닝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대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현아는 "'빨개요'와는 다른 스타일, 그리고 직설화법의 솔직함이 타이틀곡의 매력"이라며 "이번 신곡은 무대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앨범 타이틀인 'A+'는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현아의 마음을 표현한 제목이다. 작사와 앨범 디렉팅에 참여하는 등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꾸준히 솔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현아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며 "'여름하면 현아'라는 생각이 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다. 거듭되는 섹시한 이미지에 대한 부담 혹은 걱정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그러나 섹시함에 대한 현아의 생각은 확고했다.

"섹시함과 노출도 그에 합당한 상황과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음반도 고민은 많았어요. 하지만 트레일러 영상에서 상반신 노출을 결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화끈한 일탈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였어요. 앨범마다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미지 소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 더욱 채찍질을 하게 되거든요."

현아는 자신이 단순히 섹시하기만 한 가수로 기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이번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을 때 '퇴폐미'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저 잘 놀았을 뿐이에요(웃음).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섹시함이 있는, 통통 튀는 밝은 느낌의 현아로 기억되고 싶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손예진·박해일, '덕혜옹주'로 만난다

동명 베스트셀러소설 원작 허진호 감독 메가폰 잡아

배우 손예진, 박해일이 허진호 감독 신작 '덕혜옹주'로 만난다.

'덕혜옹주'는 2009년 출간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고종황제의 딸이자 조선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과 그녀를 지키고자 모든 것을 불태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손예진은 덕혜옹주 역을 맡아 '외출' 이후 10년 만에 허진호 감독과 다시 만난다. 일본에 볼모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역을 맡았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덕혜옹주의 삶을 섬세하고 깊은 연기로 보여준다.

박해일은 덕혜옹주를 조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한 역을 맡았다. 저돌적인 독립운동가의 모습부터 한 여인에게 평생을 바치는 지고지순한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덕혜옹주'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중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손예진 박해일


운명을 건 두 형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엿같은 세상 / 엿같은 인생
연극 TRUE WEST
트루웨스트
2015년 8월 13일~11월 1일 | 대학로 A아트홀
연출 | 오만석 출연 | 리·김준원 서현우 전석호 | 오스틴·이현욱 김선호 문성일 | 엄마·홍정혜 차선희 | 사울키머·이승원
주최, 제작 | (주)악어컴퍼니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 (주)악어컴퍼니 02-764-8760

야구장에 울려퍼진 생일 축하곡

스포츠 주간 해프닝


이승엽


디에고 마라도나


제이슨 데이

야구장에 응원곡이 아닌 생일 축하곡이 울려 퍼졌다. '국민타자' 이승엽(39)이 그 주인공이었다.

18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1군에 복귀한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지만 4회 우전안타를 쳐 베이스를 밟았다. 이어 후속타자 박한이의 안타 때 3루까지 진출했다.

이승엽이 3루에 도착하자 원정 응원석에서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날은 이승엽의 39번째 생일이었다. 이승엽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관중 문화가 성숙한 것 같다. 팬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 가슴이 찡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승엽은 이날 4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신의 손' 오심 심판과 재회

'축구 신동' 디에고 마라도나(55·아르헨티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오심 논란을 빚었던 심판과 다시 만났다.

마라도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준결승 주심을 맡았던 알리 벤 나세르(튀니지)와 만났다고 전했다.

마라도나는 "이번 주 튀니지를 방문해 벤 나세르와 다시 만났다"며 "나는 그에게 아르헨티나 대표팀 셔츠를 선물했고 그는 답례로 당시 경기의 사진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벤 나세르에 대해 "나의 영원한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에서 마라도나는 헤딩슛으로 첫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머리가 아닌 손으로 넣은 것이었다. 주심이던 벤 나세르는 잉글랜드 선수들의 항의에도 마라도나의 득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마라도나는 경기 후 논란이 된 첫 번째 골에 대해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했다"고 말해 득점 과정에서의 반칙을 사실상 시인했다.

태풍·희귀병 딛고 인간 승리

새로운 '인간승리'의 아이콘이 탄생했다. 17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에서 끝난 제97회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제이슨 데이(27·호주)다.

데이는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 살던 친척 8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아픔을 겪었다. 아일랜드계 호주인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데이는 필리핀에 친척이 여러 명 살고 있었다.

올해 6월 US오픈에서는 2라운드 경기 도중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2010년부터 '양성발작성 두위현훈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12세 나이에 아버지를 암으로 떠나보낸 데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다. 온갖 어려움과 슬픔, 아픔을 딛고 기어코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골프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자연에 맞설 헌터들의 등장

◆ SBS '정글의법칙-히든킹덤'

금요일 오후 10시



시즌20 특별판 '히든킹덤'의 후반전 '라스트 헌터' 편이다. 8인 8색 헌터들이 등장한다. 일명 '브루나이 붉은 강'으로 불리는 생존지에서 병만족은 자연과 치열한 접전을 펼친다. 돌아온 '낚시 헌터' 이태곤은 강 속의 '대물'을 잡겠다며 의지를 불태운다. 하하는 아들 드림이에게 겁쟁이 아빠가 아닌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엑소의 찬열은 시청률이 20%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정리=하희철 기자

◆ MBC '세바퀴'

금요일 오후 10시

이종수는 신동엽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토로한다. 또한 과거 '헤이헤이헤이2'에서 했던 콩트에서 신동엽과 했던 키스가 "원래 대본에 없었던 것"이라고 고백한다.



◆ KBS2 '출발드림팀2'

일요일 오전 10시30

'전설의 개그맨' 특집이다. 김종국, 이경래, 이원승, 김명덕 등 80년대과 90년대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졌던 전설의 개그맨이 출연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들의 이색 승부가 펼쳐진다.



◆ SBS '오마이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리키김 가족은 3D 초음파로 셋째 동생 쭈쭈를 마주한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엄마 승주의 산부인과 검진을 따라나선 태오는 초음파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동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22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어리 이야기 2 15:15 한국인의 밥상 (재) 16:10 역사저널 그날 (재) 17:10 청년취업 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해 18:00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40 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몬순 22:35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3:45 콘서트 7080 24:50 T 타임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2:30 별난 며느리 (재) 13:30 개그 콘서트 (재) 15: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5 나를 돌아봐 스페셜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24:50 영화가 좋다 (재)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30 밤을 걷는 선비 (재) 15:40 쇼! 음악중심 16:50 우리 결혼했어요 18:1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여자를 울려 22:00 여왕의 꽃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10:50 접속! 무비월드 12:10 미세스캅 (재) 14:25 런닝맨 (재) 15:50 아빠를 부탁해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첫회)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심야식당	10:1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1:40 비정상회담 (재) 13:20 썰전 스페셜 14:4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5:55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7:30 비정상회담 (재) 19:0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라스트 21: 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연쇄쇼핑가족 (첫회) 24:25 라스트	10: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천기누설 (재) 19:40 MBN 뉴스 8 20:30 나는 자연인이다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스페셜 (재)	11:30 오 나의 귀신님 (재) 12: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40 수요미식회 (재) 16:00 Let 미인 5 (재) 17: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9:10 오 나의 귀신님 (재) 20:30 오 나의 귀신님 21:4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23: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비법 14:30 유미의 방 15:00 한식대첩 끝장전 스페셜 16:00 다녀오겠습니다 17:20 오늘 뭐 먹지? 19:00 노 오븐 디저트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비법 23:20 오늘 뭐 먹지? 24:20 2015 테이스티로드
23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5:20 다큐 공감 (재) 16:10 발굴추적 항일 무장 투쟁의 선구자, 김규흥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7:40 동물의 왕국 18:0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19:10 재중동포 청소년 도전, 골든벨 20:0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그날 21:40 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몬순 22:35 역사저널 그날 23:25 취재파일 K	10:35 출발 드림팀 시즌2 11:45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화정 (재)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여자를 울려 22:00 여왕의 꽃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09:30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재)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용팔이 (재)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2015 서울재즈페스티벌 1부	10: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35 연쇄쇼핑가족 (재) 13:2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14:50 비정상회담 (재) 16: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7:25 유자식상팔자 스페셜 18:3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닥터의 승부 21:45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5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10:0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재) 11: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3:00 오 나의 귀신님 (재) 15:40 집밥 백선생 (재) 17: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30 문제적 남자	10:00 비법 11:30 주문을 걸어 12:3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16:30 올리브쇼 2015 17:30 마스터셰프 코리아3 더 레시피 18:00 한식대첩 끝장전 스페셜 19:00 유미의 방 19:30 비법 21:0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22:20 유미의 방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KOSPI and KOSDAQ was hit directly from the 'CHINA SHOCK'

'차이나 쇼크' 코스피·코스닥에 직격탄

KOSPI and KOSDAQ was hit directly from the 'CHINA SHOCK'. KOSPI declined for 4 straight days and fell all the way down to the 1930 points. KOSDAQ also collapsed over 4% with signs of panic in the market.

On the 19th, KOSPI index closed at 1939.38 with a decrease of 16.88 points (0.86%) from the day before. The index initially began with 1954.56, 1.70 points (0.09%) lower than before, and at one point fell down to the 1915 points. The analysis for the decline is associated to the unrest of China's stock market. The drop of China's stock market affected and scared further investements as it was viewed as a massive economic downfall.



19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88포인트(0.86%) 내린 1939.3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The stock market experts commented, "With the shock of Chinese yuan's depreciation still lingering, the emergence of September's US interest rate increase rumors caused the expansion of market variability."

The industry showed effects of wide-spread decline. The industries showing the biggest decrease were, Nonmetallic Mineral (-5.65%), Medical Examinations (-4.84%), Fiber Garments(-4.77%),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4.16%), Stocks(-3.84%), and Food and Drink(-3.11%).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이나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하며 1930선으로 주저앉았다. 코스닥도 4% 넘게 급락하며 패닉 장세를 보였다.

1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88포인트(0.86%) 내린 1939.38로 마감했다. 지수는 1.70포인트(0.09%) 내린 1954.56으로 시작해 장중 한때는 1915선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이날 지수 하락은 중국 증시 동요에 따른 충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증시 급락이 경기 악화로 인식되며 투자 심리를 짓누른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재부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다. 비금속광물(-5.65%), 의료정밀(-4.84%), 섬유의복(-4.77%), 의약품(-4.16%), 증권(-3.84%), 음식료품(-3.11%)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7		8	
	7		8			4	6	
2		3		9		5		
8	2			3	1			5
4			7	8			1	2
		4		7		1		8
	5	2			8		4	
	9		5					

						6		4
			5		7	3	1	
			4	9		8	5	
4		6				5	8	1
				5				
1	5	7				4		2
	7	1		8	2			
	4	9	7		3			
3		2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6	4	9	1	5	7	2	8	3
5	7	1	8	2	3	4	6	9
2	8	3	6	9	4	5	7	1
8	2	6	4	3	1	7	9	5
9	1	7	2	6	5	8	3	4
4	3	5	7	8	9	6	1	2
3	6	4	9	7	2	1	5	8
7	5	2	3	1	8	9	4	6
1	9	8	5	4	6	3	2	7

7	9	5	8	3	1	6	2	4
6	8	4	5	2	7	3	1	9
2	1	3	4	9	6	8	5	7
4	3	6	2	7	9	5	8	1
9	2	8	1	5	4	7	3	6
1	5	7	3	6	8	4	9	2
5	7	1	6	8	2	9	4	3
8	4	9	7	1	3	2	6	5
3	6	2	9	4	5	1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장거리 연애중인 연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힘든 여정… 올 11월 이후부터 어긋날 듯

주나사랑 여자 80년 2월 10일 음력 21시30분
남자 80년 5월 3일 음력 14시

Q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 좀 지났습니다. 결혼 생각을 하는데 장거리 연애를 하다보니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방에 내려와서 살자고 하는데 저는 직장과 부모님이 서울에 있다 보니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남자친구는 제주도로 발령 나서 그곳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이나 경기도로 올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분위기가 올라오기 힘들다고만 하네요. 우리 결혼하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사람 사이에서의 조율이며 남녀간에 궁합이란 상호간에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한 커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거대한 하모니입니다.

궁합을 살펴보는 것은 가정적이고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 백년해로 하면서 사는 것이 팔자소관이라고 하지만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결혼생활 중에 불가피하게 만나는 열악한 환경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궁합이라 함은 생년월일의 부호를 찾아서 간지(干支)끼리 합을 이루고 상생(相生)하면 정서적으로 잘 맞는 것이며 생일지가 합생(合生)하면 속궁합이 좋다고 봅니다. 사계절인 오행이 편중되지 말아야 하며 서로 부족한 오행을 갖고 있으면 화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귀인의 도움이 있는 천을귀인이 상호 있으면 어려운 때 원망하지 않고 상부상조해서 잘 헤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월지에서 상생하면 사돈과의 사이가 좋아 그 영향이 부부에게도 좋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갖춘 궁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나 살펴본 두 분의 궁합은 생일지에서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흉함)을 맞고 있기에 친구나 동료로는 상호 협조적이나 결혼까지는 각자입장에서 멀고 먼 인연인 듯 한데 만나서 덕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관성(官星:남자를 말함)이 귀하의 운로에서 승발하지 못하여 2015년 11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각자 입장에서는 어긋나는 기운으로 갑니다.

태어남 자체가 무에서 시작한 것이며 주변의 이러저러한 상황을 연결하다가 금방 나이 40이 될 것인데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1일 (음 7월 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돈을 좀 써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60년생**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2년생**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일신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84년생** 흉한 기운이 있습니다.

소 — **49년생** 다 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61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3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이익이 넘치는 하루가 됩니다.

호랑이 — **50년생** 서북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62년생**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74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 한다면 부당합니다. **86년생**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 — **51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63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5년생**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7년생**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삼가세요.

용 — **52년생** 주변을 정리정돈 하세요. **64년생** 귀인이 찾아와 도와줄 것입니다. **76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도모하세요. **88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뱀 — **53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5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난합니다. **77년생**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8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됩니다.

말 — **54년생** 조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66년생** 오늘을 잘 넘기면 행복한 일주일을 보냅니다. **78년생** 금전운과 이성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90년생** 뜻하지 않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양 — **55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세요. **67년생** 조상들의 지혜를 잘 되새겨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79년생**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91년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때 입니다.

원숭이 — **56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68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0년생**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92년생** 항상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닭 — **5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69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81년생** 새로운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93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개 — **58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70년생**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8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94년생** 조심스러운 하루를 보내세요.

돼지 — **59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71년생** 어떤 일이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95년생**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심이 현명합니다.

판례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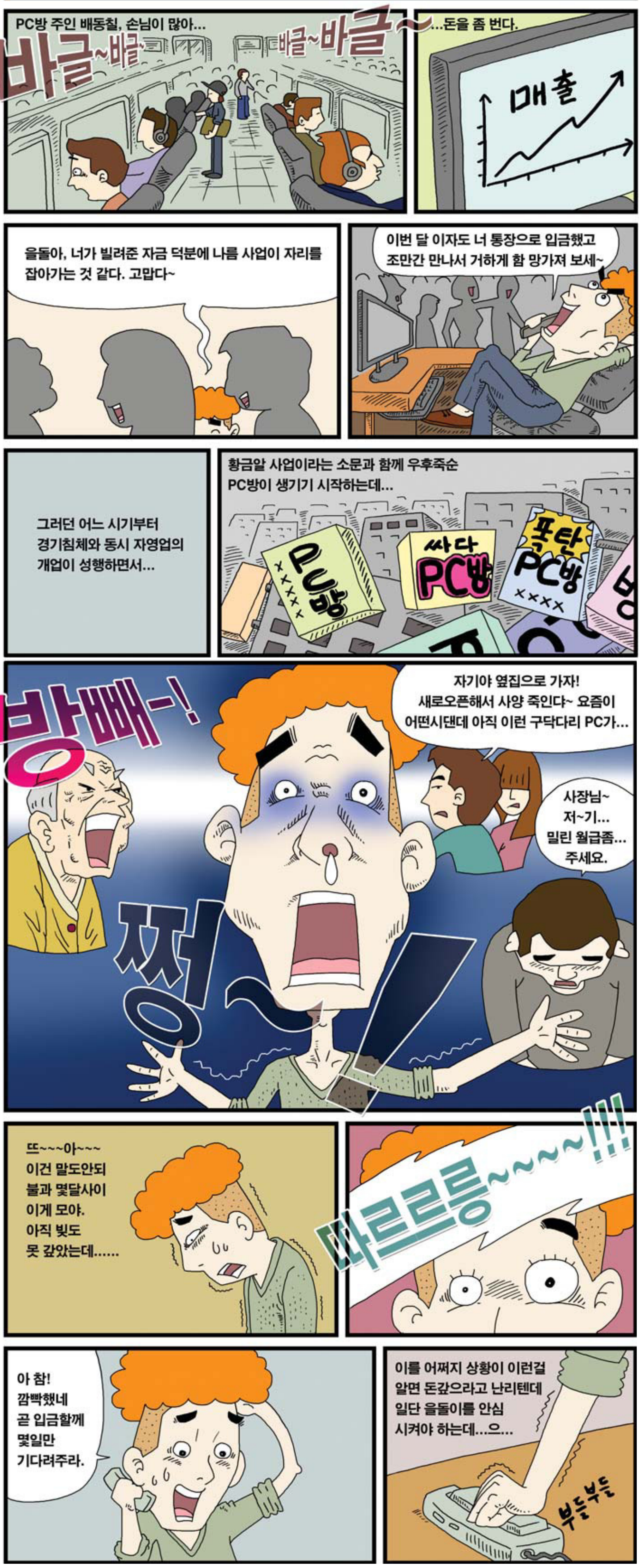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4화 통화위조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3. 29. 2011도7704, 공 2012상, 733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일 정상 역사수정에 박차를 가하다



송병형의 딴생각

한국과 일본의 양국 수뇌부에서 역사수정주의가 판치고 있다. 2015년 아시아식민 110년이 아시아해방 110주년이 되고, 건국 96주년이 건국 67주년이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8·15담화에서 한반도 침략전쟁인 러일전쟁을 식민지 해방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전쟁배상금을 쏟아부어 10년간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총과 대포를 만들기 위해 제철소를 지었고, 국민을 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외교적으로는 1902년 영일동맹으로 당대 최강대국 영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1905년 7월 러일전쟁 종전을 앞두고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반도 식민지배 체제에 미국을 합류시켰다.

영미는 열등한 아시아국가에 불과했던 일본을 새로운 강자로 추켜세웠고, 이에 힘입어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으로 승전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었다.

아베 담화로 인해 일본의 전쟁 준비는 산업화와 근대화로, 포츠머스 조약은 아시아해방의 승전비가 됐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9월 5일은 일본인들에게 아시아해방 기념일로 다가오리라. 다만 아시아해방 115주년으로 시작할지, 120주년으로 시작할지 알 수 없을 뿐이다. 설마이긴 하지만 111주년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혹자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목격한 일이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15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첫해인 2008년 8·15경축사를 건국절 찬양으로 도배한 지 꼭 7년만의 일이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고, 절반의 땅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대한민국 건국으로 당시 왕정 복고를 바라던 복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민주공화정의 역사가 열렸다. 29년 뒤 단독정부 수립은 민주공화정 앞에 '자유'를 더했다.

'건국 67주년'이란 평가는 '자유'에만 집착하다 몸통을 잘라먹는 격이다. 절름발이 행세를 자처하는 꼴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집권 첫해 "오늘은 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고, 다음 해에도 "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라고 말했다. '건국 67주년'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은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과거사 때문이다. 역사수정주의에 물든 양국 정상이 역사전쟁을 벌이며 얼굴조차 맞대지 않는 모습은 한 마디로 아이러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기자 수첩
연미란
<사회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이 명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은 점점 빛이 바래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2010년 9명에서 지난해 22명까지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을 통해 혐의를 확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줄 등 무분별한 계구를 착용시키거나 겁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 지난 4월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것도 강압 검찰의 일면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 검사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마음에 새긴 채 피의자를 마주하고, 참고인을 공범 다루듯 하다 이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겁박했다는 얘기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심약한 이가 스스로 압박에 못 이겨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는 자살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린다는 것보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음을 뜻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협박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법리를 두고 다투는 상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얼핏 평등해 보이지 않아서다. 혹 검사는 나쁜 평가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변호사가 일부러 안 좋은 평가를 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다. 검찰이 검사평가제를 불편해하는 이유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일부 유의미한 지점은 있어 보인다. 평가 과정에서 검사가 느낄 억울함 내지 불편한 감정에 대한 공유 말이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피의자가 느꼈을 억울함에 대한 간접 경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검찰이 느끼는 불편함을 경각심으로 치환시켜야 할 때다. 그래야 검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빌미로 훗날 있을 '검사평가'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인 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장애인정책국장 양성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직위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장 윤순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김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이용직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박상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 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우 ◇ 과장급 전보 ▲ 디자인생활산업과장 김규성

부 고

▲정정옥씨 별세, 최준무(금융감독원 IT검사실 선임검사역)씨 모친상 = 20일 오전 1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13호, 발인 22일 오전 9시 ☎ 02-2227-7594
▲하영기씨 별세, 성낙송(수원지법원장)씨 장인상 = 20일 오전 10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02-2258-5940
▲김동주씨 별세, 김주현(수원시 자치행정과장)씨 부친상 = 19일 오후 9시 50분, 경북 울진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2일 오전 8시
▲윤유순씨 별세, 조천희(충북 음성군의원)씨 모친상 = 20일 오전 5시, 음성군 금왕농협 장례식장 특실, 발인 22일 오전 8시. ☎ 043-883-9445
▲박재규씨 별세, 박명식(대일공업)·명우(산청군청)·상현·진선·군선씨 부친상, 강상윤(KBS부산방송총국 영상취재부장)·조재락(원웅종합건설)씨 장인상 = 20일, 경남 사천시 우리병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22일 오전 9시.

社說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이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20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오랜 숙고 끝에 신중하게 내린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승절 열병식 참석 문제는 심사숙고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시기에 방문하는데, 열병식 행사참석도 불가피해 보인다. 굳이 불참한다면 오히려 더 어색할 듯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번 방문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지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투자관계는 이미 미국과의 관계 이상으로 깊어졌다. 중국 증권시장이나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나라의 증시와 경제도 침체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또 우리나라의 한류문화와 소비재 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향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돼 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하다 해도 한미동맹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비단 냉전 논리가 아니더라도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최대한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이다. 아무리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은 이날 마치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발표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측을 향해 포격을 가해 왔다. 북한의 저의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혹시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예정대로 중국을 방문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 정상회담 등 관계개선의 계기도 함께 마련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피부관리실, 계약해지 어렵고 위생도 엉망

소비자 119

피부관리실 장기 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만4169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20일 밝혔다.

효과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은 1712건(12.1%)이었고,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나 무면허 의료시술 등 '부당행위'는 1041건(7.3%) 이었다.

이 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이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피부염이나 발진이 생겼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코·입술 등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47건·8.5%)과 피부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8.3%)이 뒤를 이었다.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37곳(37.0%)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곳에서 쓰는 해면과 수건의 오염도를 조사했더니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두고 있었고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ROYAL PALACE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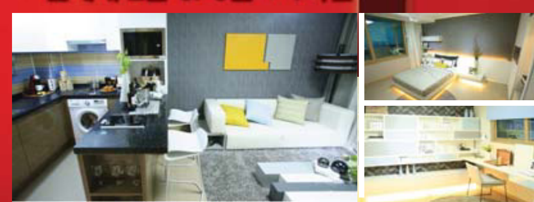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아파텔 전성시대!

요즘 뜨는 실속형 아파텔 분양



●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모델하우스 개관 중)



※ 전세대 풀옵션 빌트인 제공 및 42인치 TV제공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만족!
투자는 200%만족!

* 본 홍보물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실제와는 다르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 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한국경제
1920년 3월 5일 창간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서울대 신도시에 투자가치로 빛난다

문의전화 02)6334-9394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